

보고서 — 2019

유동하는 극장, 극장은 선택하지 않는다.





삼일로창고극장 보고서 2019  
Samil-ro Changgo  
Theater Report 2019

유동하는 극장,  
극장은 선택하지 않는다.

# 목차

## Review and Report

### 리뷰 앤 리포트

#### 6 Review

---

8 극장을 연결하는 N가지 키워드

14 기획 프로그램

16 창고포럼

30 24시간 연극제

42 퍼포논문

54 LAB

70 워킹그룹

90 창고개방

98 입체열람전

108 대관 프로그램

#### 118 Reports

---

120 운영위원회 활동보고

132 달라진 공간

136 극장 이용자 설문조사

창작자

관객

# Review and Report

# 리뷰 앤 리포트

# Review

# 리뷰



# Review

# 극장을 연결하는 N가지 키워드

# 유동하는 극장, 극장은 선택하지 않는다.

‘유동하는 극장’은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근대’라는 개념에서 가져왔다. 그간 ‘문턱 낮은’, ‘모두에게 열린’ 극장을 지향해온 삼일로창고극장의 2019년을 돌아보며 떠오른 한 마디다. 한 해 동안 극장은 높고 낮음, 넓고 좁음, 얇고 두터움으로 요약되기 어려운 유동적인 길을 걸었다. 거기에는 창고포럼, 24시간 연극제, 퍼포논문, 창고개방과 같이 지속된 프로그램과 LAB, 워킹그룹, 입체열람전 등 새롭게 시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룹편으로 진행한 상반기 24시간 연극제와 달리 하반기에는 ‘창고개방’ 프로그램으로 편성, 개인편으로 진행했다. 50명의 참가자는 제비뽑기로 결정했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개표 생방송을 진행했다. 그룹편에서는 동료 작업자들이 그동안의 작업 메소드를 다듬거나, 특정한 소재나 주제를 짧은 시간 동안 소화해보는 시도의 비중이 높았으며, 개인편은 처음 만난 작업자들이 자신들의 아이템을 내놓으며,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작업을 체험하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 p.70

창고개방은 ‘연극하는 멋진 우리들’이라는 타이틀 아래 ‘무도회’, ‘시음회’, ‘독백회’, ‘바자회’ 등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연극인 내부의 숨은 ‘재주와 사생활을 모아 함께 즐기고, ‘연극하며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멋짐을 발견하고자 했다. —— p.84

# 연극의 멋

# 지속과 시도

퍼포넌문은 2년차를 맞이했다. 수행성 있는 논문을 발견하고, 필자로 하여금 논문을 퍼포먼스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퍼포넌문의 전제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화두가 되는 이 전환적 시도는 여러 리서치 끝에 연출 겸 배우 황은후와 무대감독으로 주로 활동하는 이지혜의 논문을 각각 <좁은 몸>과 <셀프-리서치그라피>라는 이름으로 공연했다.

—— p.42

‘전송하는 역사: 기억의 개방’ 역시 창고개방 프로그램의 하나로 2010년대 이후의 연극사를 미시적 관점에서 함께 써보는 프로젝트였다. 현상 이후, 정리된 담론으로서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기억 속에 저장된 연극적 추억과 사건을 셀프 인터뷰 영상, 타임라인에 기록 등으로 기록에 남겨 전송하였다.

—— p.76

삼일로창고극장의 갤러리를 일정기간 동안 작업실로 공유하는 ‘워킹그룹’ 프로그램에는 0set과 성반연플랜31 두 팀이 선정되었다. 약 6개월 동안 상주하며, 그곳에서 세미나와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다. 0set의 활동은 삼일로창고극장의 장애인 관객과 작업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장애인화장실 설치 등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 p.90

LAB과 전시 <입체열람전>은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워크숍, 결과공유, 강연으로 구성된 LAB은 결과 발표의 부담없는 창작 실험을 지원하며, 개발 단계의 작업이 창작자들의 향후 작업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연극’은 여전히 무궁한 질문과 답을 가진 주제로서 연극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 p.54

한편, 시맨틱 데이터로 삼일로창고극장의 1970년대를 분석한 전시 <입체열람전>은 연극 아카이빙의 방향과 활용 방식을 새롭게 제안한 프로그램이었다. 연구자 정주영의 <소극장 연극 시맨틱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웹디자이너, 사운드 아티스트, 비평가, 시각예술가, 소설가가 참여하여 총 다섯 점의 작품과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마련했다. 공연예술 아카이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본 전시다. —— p.98

극장은 비물리적 공간이다. 극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 극장을 채우는 작업, 극장을 채우는 사고에 따라 극장의 형태와 질감은 달라진다. 극장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달리하자면 그렇다.

# 적용과 예견

# Review

# 기획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기획 프로그램

안녕  
프로그램

## “삼일로창고극장의 정체성을 묻다”

<창고포럼>은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한 좌담 프로그램이다. 민관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운영되어 온 삼일로창고극장의 정체성과 비전을 점검하고 극장 운영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과 스태프진, 그리고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 현장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극장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 제1회 창고포럼

첫 번째 <창고포럼>은 “민간극장과 공공극장의 공존은 가능한가?” 라는 제하에 현재 민간극장이나 공공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의 고민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각각의 극장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을 경유하여, 동시대 창작환경 내에서 극장의 정체성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 2019. 3. 26(화)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사회 전윤환(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

패널 전진모(신촌극장), 신재훈(혜화동1번지 6기 동인), 홍은지(신촌문화발전소), 민새롬(미아리예술극장), 우연(남산예술센터)

“극장은 어찌 됐든 색깔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술을 다루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남산예술센터는 나름 지난 10년간 자기 정체성을 쌓았다고 생각해요.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 부분은 변치 않겠다는 것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남산예술센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겪게 되는 난제는 소유권의 문제죠. 임대 자체를 회수해 가려고 하는 주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국 연극사에서 이 소유가 맞느냐는 문제인데요. 이게 2020년까지의 과제인 거겠죠. 지금 연극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진-록펠러-국유지로 만들어진 이 극장이 결국 사회로 환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답을 해야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세금을 투여했으니까요. 그리고 운영의 주체였던 서울문화재단도 거기에 인력과 자본을 쏟았기 때문에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당사자인 서울에대의 답이죠.” (우연, 남산예술센터)

“극장별로 색깔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기획 경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 경쟁의 방향성 자체가 관객의 호응도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관객의 호응도라는 것이 물론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명히 기획 단계에서 생각하고 이룩하고자 하는 성과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연출들, 동시대에 거론되는 연출들을 한꺼번에 부르구요. 또 다음에 그런 이슈가 될 만한 연출들을 다시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극장 저 극장에서 하는 구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공공이 극장을 소유할 때, 정체성과 공공성이 과연 같이 만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공성 안에서 다시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거나 공공성을 전제하면서 정체성이 아닌 경우들이 더러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에 있어서요.” (전진모, 신촌극장)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대화하다보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요. 저희는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내세우고 어떤 활동을 했냐면, 일단 동인이 극장을 6개월 사용해요. 봄가을 페스티벌이요. 우리 극단에서는 페스티벌 주제를 삼을 때 조금 더 첨예한 문제, 논쟁적인 문제를 삼으려고 노력했어요. 한 발 양보해도 비정치로 물러나 있는 것을 정치화시키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페스티벌의 주제로 삼았고,

대표적인 게 <기획초청공연 세월호>였고요. 나머지 6개월은 대관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이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대관을 하러 오는 분들도 비슷한 분들이 오시고요.” (신재훈, 혜화동1번지)

“민간극장이나 소극장 협회에 지원금을 붓는다고 해서 극장들이 활성화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엉뚱한 방향으로 쓰일 수밖에 없고요. 공공에서 재원과 관련했을 때 민간이 공공성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역제안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이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혹은 독일에서 앙상블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례도 있는데요. 지금은 전속단체나 계약을 한 공공 행정 결정권이 전제가 된 상황 안에서 예술가들하고 계약을 하는 방식인데요. 아예 인사권이나 모든 권력이 있는 하나의 단체가 극장하고만 계약을 맺는 방식, 그런 방식에 대한 발상 전환이 가능하지 않나. 창작자들이 작업하는 공간으로서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적 공공성은 둘째 치고 공간으로서 작업장으로써 극장이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방식들을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홍은지, 신촌문화발전소)

“민간조합이 어떤 종류의 정체성을 지역 씬 안에서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재단이 조력하는 종류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재단과 조합은 각자가 달성하고 싶어 하는 모자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두 줄기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는 지역문화재단이 극장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조합이 재단에 협력하고 운영 방식을 자문해주는 것이고요. 시설에 대한 위탁 책임을 지역문화재단이 맡고, 지역의 준전문 인력이 고용되는 구조입니다. 그 인력들의 업무를 설계하고, 즉 그 극장에 사람이 왜 고용이 되어야 하며, 공연 전후나 정비 기간 등 365일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같이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문화예술의 위상에서 보면 당연히 극장이 원래 하고 만들어졌어야 하는 것인데요. 어떤 맥락에서든 만들어진 시설에서는 부재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민간에서 같이 극장에 몇 명 필요하고, 어떤 종류의 창작자나 관객이 드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비한 안전 시스템은 무엇이고, 미비한 관객 접대 시스템은 무엇이고, 기술적으로 해야 하는 상시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작년부터 매뉴얼로 만드는 중입니다.” (민새롬, 미아리에술극장)

## 제2회 창고포럼

두 번째 <창고포럼>은 재개관 이후 삼일로창고극장이 만들어온 정체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공공극장과 민간극장 사이에서 정체성을 조율하는 문제, 진입장벽과 대관 기준의 문제 등 극장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놓고 토론했다.

일시 2019. 7. 30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사회 전윤환(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

패널 우연, 이경성, 허영균(운영위원)

도재형, 김지우, 김진이, 송서연,

김민정, 김시내, 박혜원(극장운영팀)

이정욱, 피울서, 김소희, 임성현,

박선입, 박병훈(무대기술팀)

“진입장벽이란 무엇일까요? 대관하는 단체들을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선입견이 있었다든가, 편파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를 구별해 내는 거라고 봐요. 무조건 진입장벽을 낮춘다거나 없앤다거나 이상적인 생각으로는 극장을 운영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 극장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1년에 100개를 할 수 없고 10개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준을 적합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연, 운영위원)

“저는 사실 옛날의 삼일로창고극장과 에저또 극단의 시절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세대에게 과거의 역사성에 매여서 현재성이 없다거나 끊어져 있어서 없는 것 보다는, 너무 미래에 가 있어서 현재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너무 완벽히 갖추고 가려고 하다 보니, 대관을 선정하는 기준에서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젊은 창작자이고, 대학로나 타 극장에 아직 올라갈 준비가 덜 되었음에도 지향성이 같다거나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 관객들한테도 삼일로창고극장이 담론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외에 공연을 관람해야 한다는 흥미성으로 다가간다고 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작품들이나 대관 공연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 PC한 극장으로 큐레이션 한다고 생각하는 관객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송서연, 극장운영팀)

“저는 삼일로창고극장이 공공극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표현하는 것을 보면 공공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한다고 생각해요. 공공이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민간 운영위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표현되는 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에 대해서는 이 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극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이 기획프로그램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PC함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우, 극장운영팀)

“처음에 삼일로창고극장을 만들었던 이유는 삼일로창고극장이 공공극장으로서 역할을 하기보다, 공공이 처음에 지원을 해주고 점차 민간이나 어떤 형태로든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고자 한다면 지금은 첫 발자국을 뗐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는 운영위원이 어떤 형태로든 역할이 확대되고 인원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겠죠. 5명에서 역할만 확대해서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기획에 관련된 운영위원, 대관에 관련된 운영위원, 작품 개발에 관련된 운영위원, 이런 식으로 인원수도 확대되면서 역할도 분담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울서, 무대기술팀)

# 제3회 창고포럼

세 번째 <창고포럼>에서는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의 역할을 설계하는 문제와 상근 인력의 문제 등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을 나누었다. 운영위원회 내부의 원활한 소통 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협치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일시 2019. 8. 21

장소 남산예술센터 3층 회의실

사회 전문환(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

패널 우연, 박지선, 허영균(운영위원)

정진세(연극인 편집장/전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

장재환, 도재형, 김지우, 김진이,

김민정, 김시내, 박혜원, 김경림,

김지은, 임윤희(극장운영팀)

“운영위원회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극장에 있는 PD분들이 행정 지원을 하는 것 외에 물리적으로 시간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전제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많아지죠. 그러다 운영위원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또 방법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남산예술센터의 PD들이 참가하실 때,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어나가는 협력파트너 PD라고 했을 때는 일이 많이 달라지고요. 그게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처음에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죠.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런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한 역할 분담이 된 거죠.” (박지선, 운영위원)

“남산예술센터와 삼일로창고극장의 위상을 재단 내부 조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탁공간이다보니까 인력투입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이 떨어져요. 이게 공간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이 안 되는 거죠. 또 단순하게 삼일로창고극장의 성격이 대관극장으로만 운영된다면 다르게 비추질 수 있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다양한 기획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운영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재단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여건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산예술센터의 인력이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과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PD 인력들이 잘 능력을 발휘하고, 업무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배치하는 거죠.” (장재환, 극장운영팀)

“1기의 구성원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고 삼일로창고극장이 새로운 미션을 받아서 재개관을 할 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거버넌스의 감각이나 극장 운영의 감각에서는 차이가 있었고요. 다행히 재개관이 연기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역할하고 업무분장 같은 것들이 의미는 있지만, 다시 끊임없이 재구조화되든지 그때그때 맞춰서 즉흥적으로 가야하는 지점도 있는 것 같고요. 운영위원 책임제로 파트를 나눠서 가져가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2기가 되든, 3기가 되든 여섯 명의 운영위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순간 무기한 딜레이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임성을 갖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정진세, 전 운영위원)

## 제4회 창고포럼

네 번째 <창고포럼>은 2020년 삼일로창고극장의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2020년 6월에 있을 극장 위탁계약의 문제와 제2기 운영위원회 선출 문제를 핵심적인 안건으로 놓고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 2019. 10. 7

장소 남산예술센터 3층 회의실

사회 전문환(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

패널 나희경, 박지선, 허영균(운영위원)

장재환, 도재형, 김지우, 김진이,

김민정, 김시내, 송서연,

박혜원(극장운영팀)

“지금은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공간이 모두 묶여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요. 지금의 상태로 어떤 다른 장치 없이 바로 민간에게 위탁운영을 했을 때, 작은 연극 단체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팀과 기존에 공간 운영 경험이 많은 기업이 들어오면 앞의 팀이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내부에서는 할 수 없죠.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삼일로창고극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문화예술계에서 이런 공간들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범위 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박지선, 운영위원)

“극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감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프로그래머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극장을 운영한다는 감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 위치를 어떻게 더 가깝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내부 포럼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 그런 감각이 생기지 않을까. 책임의 권한 부분인가, 나의 권리에 대한 부분인가. 그런 게 주어진다면 더 있을 수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상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기에 더 밀착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구조 안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는 거죠. 운영위원회의 미션 자체가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많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관극장이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을 프로그래밍하면 된다는 생각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대관을 많이 빼게 되면 그 지점의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겠죠.” (전윤환, 운영위원)

# 제5회 창고포럼

다섯 번째 <창고포럼>은 삼일로창고극장 제2기 운영위원 공개모집을 위한 설명회로 마련되었다. 외부참여자들을 위해 제1기 운영위원회의 운영 목표와 활동 사항을 브리핑하고, 현재 극장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극장 운영과 관련해 플로어와 질의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 2019. 10. 14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갤러리

사회 전윤환(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

패널 나희경, 우연, 허영균(운영위원)

장재환, 도재형, 김진이, 김민정,

김시내, 송서연, 박혜원(극장운영팀)

“행정적인 의무가 강조된 것 같은데요. 내외적인 미션이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2기 운영위원회는 민간으로 이양되기 직전 단계에서 어떻게 잘 이양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이나 내규 같은 것에 대한 의무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중이 많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자로서 프로듀싱의 미션도 있고요. 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 극장이 해야 하는 실험적인 장르들을 제안해주시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허영균, 운영위원)

“공공의 극장과 협업하는 일들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생태계를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을 2년 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공공의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의 영역에서 공공과 어떻게 협업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지, 민간에게 이양될 수 있는 지점은 있는지,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지점이 앞으로 저의 활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민간끼리 목소리를 낼 때와 여기에 와서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추진력 자체가 시설이 분명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하고, 예산이 존재하고 있고, 행정을 지원해주는 직원 분들이 존재한다는 지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전윤환, 운영위원)

평등노동기회 프로그램

24시간연극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소개

<24시간연극제\_그룹편>은 참여 팀에게 극장의 전 공간을 24시간 동안 개방, 제한된 시간 내에 공연을 준비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프로그램이다. 창작 활동의 결과를 선보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창작자들에게 자신들의 창작 언어를 실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개인 단위로 모집했던 전년도와 다르게 그룹 단위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 12개 팀, 67명의 창작자가 참여했으며 총 181명이 관람했다.

## 진행 방식

매일 3개의 팀이 15분 내외의 연극 공연을 발표한다. 3개 팀은 동일한 주제를 공유하되, 각기 다른 공연을 만들어 발표하게 된다. 참여팀들은 사전에 주어진 주제들(“우리집에 왜 왔니”, “우주적 공포”, “길 위에 서다”, “738”)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주제를 나누어 갖는다. 24시간이 지난 후 각자 준비한 창작물을 발표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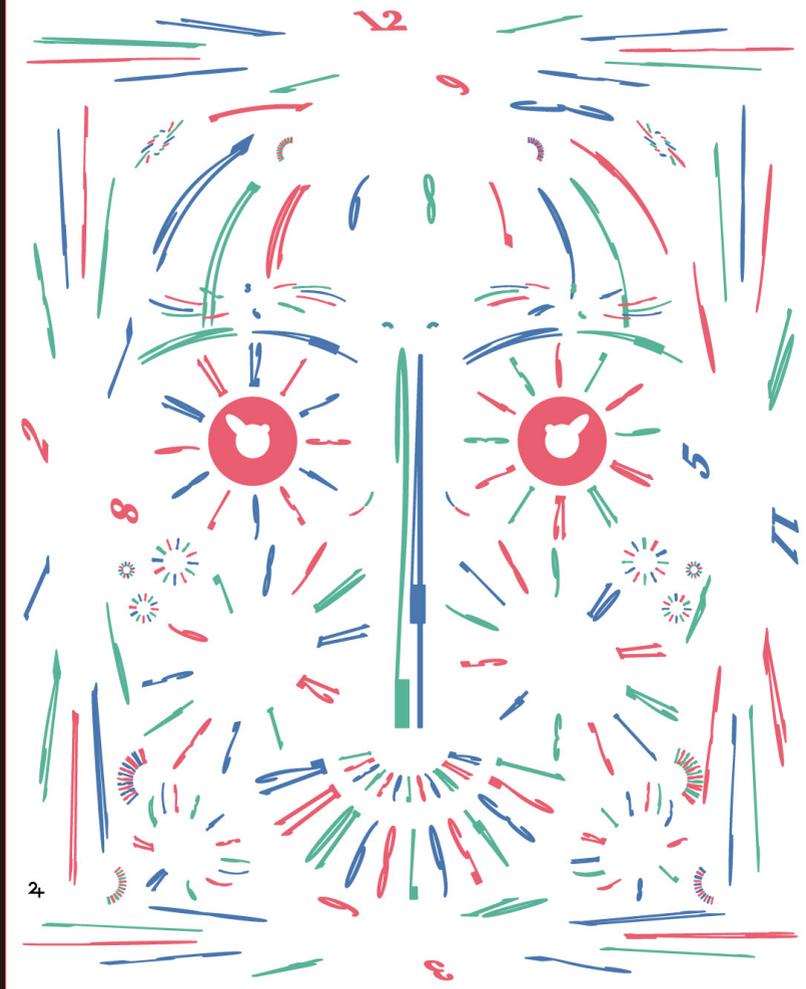
일시	주제	그룹	팀원
6/13 (목)	우리집에 왜 왔니?	SSAL	김민주, 최귀용, 신주훈, 배수진, 신보섭
		창작집단 여기에 있다	박세련, 이진경, 정대진
		비아토르	조윤수, 장영철, 채영은, 박다혜, 지성근
6/14 (금)	우주적 공포	로맨틱 유랑극장	권귀빈, 김건우, 문동혁, 박지훈, 박현지, 유진영, 이섬, 한기장, 황수연, Forest Ian Etsler
		STAGE HORSE	김명연, 주창환, 조재욱, 김민주, 양선용, 박준하, 김성
		사람	이채연, 김달호, 박청용, 권용덕, 서준영, 권혁주
6/15 (토)	길 위에 서다	극단 낮선사람	황유택, 최주희, 박시현, 이영재, 박정현, 박혜운, 유승민
		콜렉티브 덩굴	김정은, 부진서, 성지수, 오현지
		매머드 머메이드	김가현, 이수현, 김은한
6/16 (일)	738	프로젝트 여기에서 저기로	김신형, 김용오, 남선희, 백수희, 우주현, 이태호, 전남표, 전미주
		다이빙 라인	나경호, 남재국, 박이슬, 이수림, 정성민
		극단 Y	강윤지, 김연경, 변승록, 백혜경

## 운영 & 진행 스태프

전윤환(프로그래머), 김기일(프로그래머),  
조민정(무대감독), 임성현(음향감독), 박선임(조명감독),  
송명규(기술감독), 김지우(기획운영), 박혜원(기획운영),  
박태양(사진기록), 하지훈(홍보물 디자인)

24시간연극제  
그룹편

2019. 06. 13. Thu — 삼일로창고극장  
06. 16. Sun



6/13(목)  
SSAL



6/13(목)  
창작집단  
여기에 있다



6/13(목)  
비아토르



6/14(금)  
로맨틱 유랑극장



6/14(금)  
STAGE HORSE



6/14(금)  
사람



6/15(토)  
극단 낮선사람



6/15(토)  
콜렉티브 뒹굴



6/15(토)  
매머드 머메이드



6/16(일)  
프로젝트  
여기에서 저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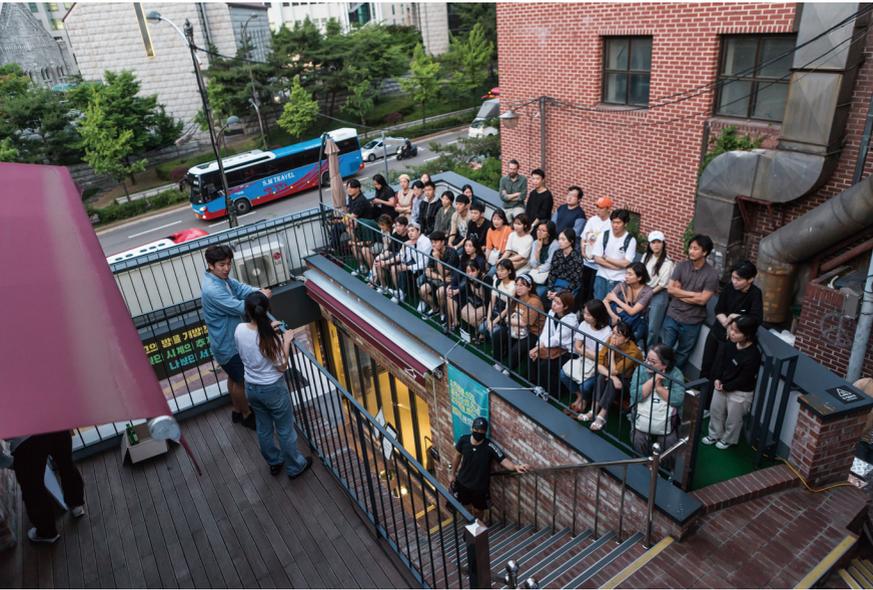
6/16(일)  
다이빙 라인



6/16(일)  
극단 Y







## [리뷰]

### 콤팩트한 환경에서 자유로운 상상은 가능할까?

#### 삼일로창고극장 <24시간연극제\_그룹편>

박세련(연출가), 웹진 연극in(2019.6.27.) 게재

6월 13일, 우리 집에 왜 왔니?

‘SSAL’은 타악기와 빔을 이용하여, ‘비아토르’는 우화의 형태로 자신들의 언어를 실험했고, ‘창작집단 여기에 있다’는 ‘우리 집에 왜 왔니?’ 라는 문장을 ‘남산예술센터, 삼일로창고극장에 왜 왔니?’라는 문장으로 상정하여 스튜디오의 물건으로 작은 남산예술센터를 만들어 내며 현재의 남산과 예술 생태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6월 14일, 우주적 공포

‘로맨틱 유랑극장’은 여행지에서 마주한 공포에 대하여, ‘사람’은 시간과 죽음의 반복을 통하여, ‘스테이지 홀스’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공포의 경험을 통해 우주적 공포를 표현했다.

6월 15일, 길 위에 서다

‘극단 낯선사람’은 ‘길 위’와 ‘길 아래’ 즉, 상하의 구조를 이미지를 통해 표현해 내었고, ‘매머드머메이드’는 연극의 과정 그리고 멈춰진 그 자체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위트있게 풀어냈다. ‘컬렉티브 뒹굴’은 스튜디오의 모든 물건을 배우의 몸을 통해 새롭게 구성해 냈고, 결국 길 위에 남겨진 자신의 육신을 그려냈다.

6월 16일, 738

‘프로젝트 여기에서 저리로’는 738번의 번호표를 가진 취준생의 모습을 그려내며 n포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극단 Y’는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인원이 738명이었다는 어느 설문조사 결과에서 영감을 받아 지구 종말에 남은 두 명의 남녀의 이야기를 했고, ‘다이빙 라인’은 소리와 언어와 신체 등을 통해 실제 738이라는 숫자를 스튜디오 공간에 채워 나갔다.

참여한 팀들은 24시간 동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각각의 언어를 실험했고 그 과정을 즐겼다. '과연 24시간 안에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모두의 걱정은 공연을 마친 후 즐거움으로 바뀌었고, 콤팩트한 환경 안에서 머리를 맞댄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무대 위에서 빛났다. 총 12팀을 모집했던 <24시간연극제 - 그룹편>은 프로그램 신청 사이트가 오픈되고 1분 24초 만에 지원이 마감되었다고 한다. 연극에 관심을 가진 혹은 무대에 서고 싶은 단체들은 휴대폰과 컴퓨터, 랩탑 앞에서 마치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을 하기 위한 전투적인 자세로 앉아 있었을 것이다. 우리 또한 그러했으니까.

공연이 끝나면 매회 관객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 연극제를 신청하게 되었나요?', '공연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늘 빠지지 않고 나온 관객의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창작자의 대답이다. 지원사업이 여러 재단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연할 곳이 없어 목말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공연을 기획한 창고극장에서도, 또 지속 가능한 예술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다른 많은 팀들에게도 <24시간연극제\_그룹편>은 여러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동행기회 프로그램

퍼포먼스

## “논문, 공연이 되다”

<퍼포논문>은 연극과 퍼포먼스에 관련된 논문을 무대화하는 프로젝트이다. 논문의 언어를 현장의 언어로 교환해 ‘이론이 무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실험한다.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회는 학위논문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고 현장과 이론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2018년부터 <퍼포논문>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2019년 <퍼포논문> 프로그램을 통해 두 편의 공연이 소개되었다. 이지혜의 <셀프-리서치그라피>와 황은후의 <좁은 문>이 그것이다. 2018년 첫 <퍼포논문>이 공연예술 이론가의 논문이 무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현장에서 배우나 무대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현장의 경험을 반영해 쓴 논문을 다시 무대로 환류하는 과정이 주목되었다. 논문 텍스트뿐만 아니라 저자가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퍼포먼스에 다각도로 반영함으로써 논문을 재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 첫 번째 공연

### <셀프-리서치그래피>

저자 이지혜

구성·연출·출연 이지혜

8/16~18

#### 작품 소개

<셀프-리서치그래피>는 저자의 경험에서 출발한 석사학위논문 「한태숙 연출작업의 특성 연구 - 시노그래피(scenography)의 관점을 중심으로-」(2017)를 바탕으로 한다. 시노그래피는 30여 년 전 유럽에서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한 용어로 단순한 무대 장식이나 무대 미술을 뛰어넘는 ‘시각적인 극작법’으로 이해된다. 20세기 이후 연극 무대에서 텍스트의 언어 이외의 요소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시노그래피는 주요한 표현 방식으로 부각되었다. <셀프-리서치그래피>는 시노그래피의 간략한 연대기를 전달하고, 나아가 관객이 시노그래피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획되었다. 공연에서는 “시노그래피를 어떻게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가?”, “시노그래피가 공유 가능한 체험이 된다면, 관객에게 닿을 수 있는 시노그래피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 “관객을 전제로 하는 공연 형식에서 시노그래피는 어떻게 논문과 다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 저자 이지혜는 논문의 체계를 공연의 구성 형식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을 통해 시노그래피를 만들고 관찰하는 저자 자신의 시선과 관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 저자 소개

이지혜는 안양예고 연극영화과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서울예대 연극과에서 연출을 전공했으며, 동국대학교 연극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여러 연극과 뮤지컬에서 무대감독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연극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현장에서의 경험과 이해가 이론의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탐구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동시대 연극의 무대 언어들이 어떻게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연구에 관심이 많다.

## 제작진

저자 이지혜, 구성·연출·출연 이지혜, 무대 김은유,  
무대모형제작 신나경, 조명 박유진, 영상 김혜민, 조명  
오퍼레이터 이상진, 영상 오퍼레이터 전정욱, 조연출 박유림,  
무대감독 김소희, 기획 허영균·이경성, 프로듀서 김지우·  
김진이, 무대감독 박병훈, 조명감독 박선임, 음향감독  
김소희·임성현, 기록사진 박태양, 기록영상 박영민,  
홍보물디자인 LIFT-OFF



## 두 번째 공연

### <좁은 몸>

저자·연출 황은후

출연 강하늘, 김정, 황은후

8/23~25

#### 작품 소개

<좁은 몸>은 황은후의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성별화된 몸(gendered body)이 여자 배우의 연기를 위한 창조적 준비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9)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연이다. 본 논문은 저자 황은후가 <메이크업 투 웨이크업> 공연 시리즈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과 외모노동의 양상을 세밀하게 관찰했던 경험을 토대로 쓰였다. 일상생활에서 습득된 ‘여성스러운’ 몸짓, 태도, 정체성 등이 무대 위에서 유사한 습관을 지닌 인물을 재생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좁은 몸>은 성별화된 몸의 사용 방식이 배우의 창조적인 심신을 마련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 논문의 핵심 내용을 따라가면서, 좁은 공간 속에 갇힌 몸과 뻗어나가지 못하고 계속 고정된 자리로 되돌아가는 몸의 작동 방식을 무대 위에서 탐구해보고자 했다.

####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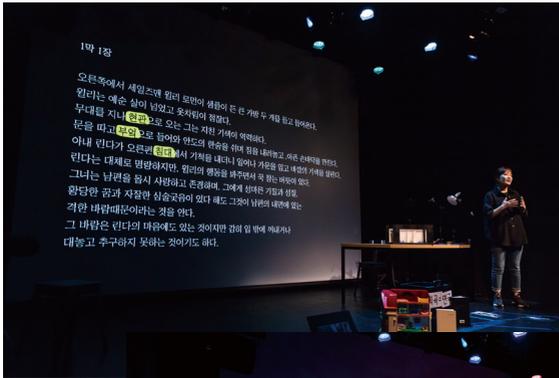
황은후는 사막별의 오로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이자 창작자이다. 사막별의 오로라는 김정, 황은후가 주축이 되어 꾸리고 있는 연극 팀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의 역량과 창조성을 증대시키는 방식의 대안적인 작업을 모색한다. ‘몸’과 ‘여자’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관객의 감각을 발동시킬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몸의 문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 제작진

저자·연출 황은후, 공동구성 강하늘·김정·황은후, 출연 강하늘·김정·황은후, 조명디자인 성미림, 영상디자인 강수연, 사운드디자인 강하늘, 영상 오퍼레이터 전정욱, 무대감독 김소희, 기획 허영균·이경성, 프로듀서 김지우·김진이, 무대감독 박병훈, 조명감독 박선임, 음향감독 김소희·임성현, 기록사진 박태양, 기록영상 박영민, 홍보물디자인 LIFT-OFF





삼일로창고극장 기획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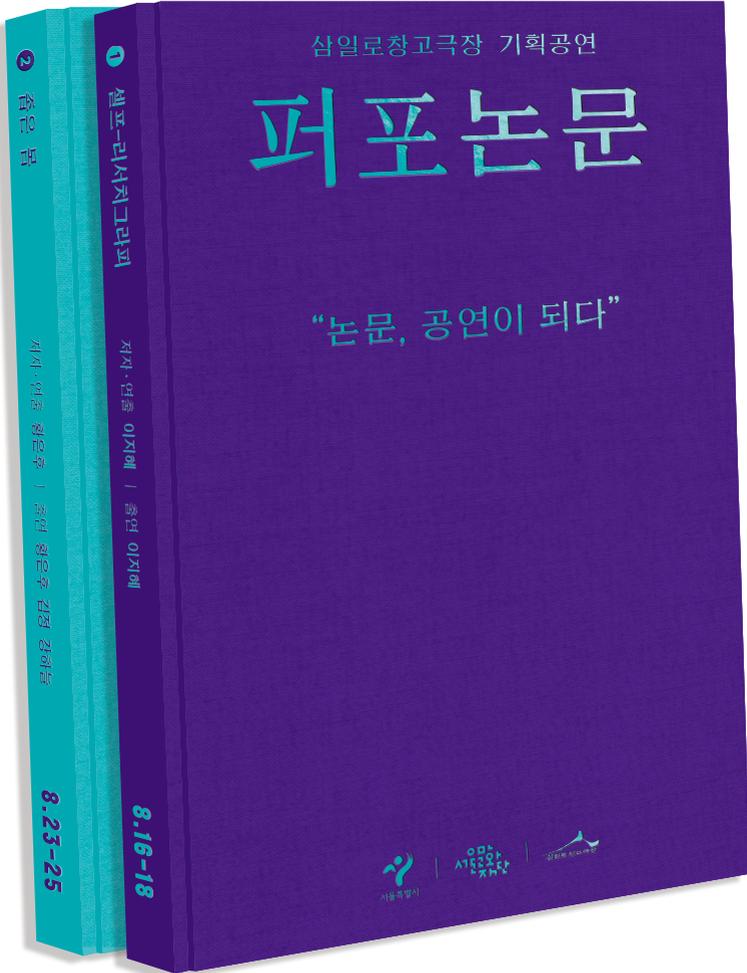
# 퍼포논문

## ① 셀프-리서치그래피 2019.8.16-18

시간 금 19:30 | 토·일 15:00  
저자·연출 이지혜 | 출연 이지혜

## ② 좁은 몸 2019.8.23-25

시간 금 19:30 | 토·일 15:00  
저자·연출 황은후 | 출연 황은후 김정 강하늘



“삼일로창고극장 기획공연 <퍼포논문>은 연극, 퍼포먼스 관련 최신 논문을 무대화하는 프로젝트다. 이론의 언어를 현장의 언어로 교환하며, ‘무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을 실험하고 시도한다. 이지혜는 논문 「한태숙 연출작업의 특성 연구 - 시노그래피(scenography)의 관점을 중심으로 -」에서 탐구한 ‘시노그래피’ 개념을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에게 소개하며, 연극 연구자의 연극성을 탐구하는 작품 <셀프-리서치그라피>의 저자, 연출, 퍼포머다.” (허영균, 운영위원, <퍼포논문> 기획)

“연극 연구를 통해서 현장의 어휘와 이론의 어휘가 만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현장이 이론에 대해 갖는 답답함도 이해합니다. 이론이 현장에 대해 느끼는 것에도 공감하고요. 근데 꼭 선후를 따져야 하는 일인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현장과 이론을 모두 경험한 연극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의 연극을 보면, 확실히 이론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점점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론이 현장의 영감이 될 수 있고, 현장이 이론의 영감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서로 간의 돌파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연구와 공연의 선후를 따지거나 가르기보다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운 연극도 그런 거였으니까요.”

(이지혜, <셀프-리서치그라피> 구성·연출·출연)

“이번 <퍼포논문>에서는 여성적 몸의 훈육에 따른 몸의 작동과 변화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더라도 좀 더 변태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특히 논문 이후로 한 사람의 ‘고유감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평형, 온도, 압력, 진동과 같은 일반감각에 대해 사람마다 각기 다른 고유감각을 구성하는데요, 여성에게 좁은 공간성을 가지게 만드는 태도에 대한 훈육이나 하이힐과 같은 여성적 꾸밈 등이 어떻게 개인의 고유감각을 바꾸는지 궁금해요. 또 아름다움에 대한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신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어떻게 외부 세계를 향한 감각을 차단하게 만드는지도 몸으로 탐구해보고 싶어요. 이러한 몸의 감각과 이미지를 무대에서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황은후, <좁은 문> 저자·연출)

“황은후는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 그것을 강요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여성의 몸이 속박되는 방식과 그 속박이 여성 배우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제한하는지 탐구해왔다. 무대 공연을 할 때는 경험을 통해 남아있는 사회적 감각과 예술적 본능에 의거해 문제를 들여다보았고 논문에서는 논리적 언어를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침체화하였다. 이번 여정에서는 실제와 이론을 보다 통합적인 형식으로 퍼포넌문화(?)하여 문제에 다가가고자 한다. 펼쳐질 시간은 배우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나아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해방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는 공간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경성, 운영위원, <퍼포넌문> 기획)

해당 내용은 <퍼포넌문> 합평회에서 나눈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리뷰] 글자가 살아나 움직이는 세상

### <퍼포논문>

엄현희(연극평론가), 웹진 굿스테이지(2019.10) 게재

이지혜의 <셀프-리서치그래피>는 논문의 저자 이지혜가 혼자 출연해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조금 긴장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논문의 핵심 개념인 ‘시노그래피’에 대해 설명하며 시작한다. 이지혜는 예술고등학교 출신의 배우 경력자답게, 어둠 속에서 그녀만을 쳐다보고 있는 말없는 관객들을 향해 자신 있게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녀의 말하는 행위가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설명하는 ‘시노그래피’가 대략 극장(무대)과 관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감각적 자극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지혜는 ‘저 조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상상’해 봤냐며, 극장을 살아있는 존재처럼 대한다. 무대가 생명체처럼 살아있으려면, 그것과 관계 맺어 상상하며 느끼는 관객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지혜는 극장을 대신해 우리들에게 계속 해 말을 걸며, 무대와 객석이 더불어 만드는 공연이란 특수한 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느끼도록 이끈다.

<퍼포논문>의 첫 번째 작품인 <셀프-리서치그래피>는 저자 이지혜의 자의식이 두드러진다. 시노그래피의 개념 설명에 이어 좀 더 개인적인 경험이 고백적으로 나온다. 무대감독으로서 극장에서 일했던 일, 다쳤지만 스태프로서 최선을 다했던 경험, 학생시절 배우였다가 연극의 여러 포지션을 경험한 것이 이론 연구와 논문에 어떻게 맞닿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 경험은 분명히 진솔하며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퍼포먼스인 만큼 좀 더 드라마틱한 구성을 했다면 어땠을까. 시노그래피의 개념에서, 그러한 개념을 낳게 한 순간들까지의 연결이 너무 순차적이어서, 뒤로 갈수록 긴장감이나 밀도가 떨어지게 다가왔다. 만일 논문을 쓰며 만났을 괴로웠던 순간, 혹은 자신의 생각과 저항되는 부분들에 대해 표현했다면 어땠을까. 작품은 이론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밀고 갔으면 하는 지점에서 멈춘 것 같다.

황은후의 <좁은 문>은 퍼포먼스적 성격을 강조한다. 논문의 저자인 황은후 외 두 명의 배우가 함께 출연해 장면을 역동적으로 꾸린다. <좁은 문>은 여성이라고 성별화된 몸이 배우의 연기 표현에 미치는 영향이란, 페미니즘적 시선이 강한 주제를 보여준다. 공간을 마치 패션무대의 런웨이처럼 꾸민 것이 인상적이다. 저자인 황은후의 말대로 여기 모인 관객들조차 시종 연기하는 배우들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여성스러운지 판단하며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닐지. 배우들은 지하철 방송처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규율하는 '여성스러움'의 무수한 자극의 사이로 하이힐을 신은 채 아슬아슬 걸어간다. 조명이 밝아질 때마다 마주 앉은 관객들의 몸, 그 존재를 일일이 감지하며 묵직한 존재를 자꾸 좁게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좁은 문>은 제목을 봤을 때, 피와 살, 맥이 뛰는 육체적이며 감각적인 자극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확실히 공간의 역동적인 사용과 몇몇 장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보다 대다수의 장면들이 리서치 및 토론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성적인 자극들로 채워져 흐름이 자꾸 끊기는 인상을 받았다. 작품이 말하는 구체적 사례들과 작품에서의 관념적 몸 사이의 간극이 좀 멀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기획프로그램

평가 (T/A/B)

## “동시대 예술가들의 실험실”

<랩(LAB)>은 2019년 4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3차의 워크숍과 결과 공유 및 강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연극 창작 및 발표 중심인 삼일로창고극장에서 창작자들이 결과 발표의 부담 없이 새롭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공극장의 창작자 지원, 육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연극’을 주제로 해외 예술가 초청 워크숍, 창작 및 결과 공유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기술 융합형 공연예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공연예술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했다. 6개월 간의 창작 워크숍 운영을 통해 삼일로창고극장이 연출가, 작가, 프로듀서, 디자이너 등 다양한 영역의 창작자들에게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자 간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는 창작·교류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또한 각 작품마다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여 평론가, 관객, 창작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개발 단계의 작업이 창작자들의 향후 작업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1차 워크숍: 독일예술가 초청 워크숍

기술이 지닌 가능성은 전통적 연극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한다. 예술계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빠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2019 랩(LAB)에서는 4월 16일과 17일, 독일에서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퍼실리테이터로 초청해 국내 프로듀서, 연출, 드라마투르그, 작가, 게임프로그래머, 사운드 아티스트 등 다양한 포지션의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1차 워크숍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기술로 인한 무대의 확장 가능성, 현대 연극 미학 탐구, 현대 연극에서의 관객의 위치, 장애인 문화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의 활용, 소규모 프로덕션에서 적은 자본으로 구현 가능한 기술 등 다양한 궁금증을 안고 있었다. 독일 예술가들은 다양한 창작 사례를 공유하며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연극을 향한 참가자들의 무수한 질문에 답변했다.

일시 2019. 4. 16.(화) ~ 4. 17.(수)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및 스튜디오

대상 프로듀서, 연출가, 드라마투르그, 작가,  
게임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26명 참여

주최 (재)서울문화재단 삼일로창고극장, 주한독일문화원

주관 (재)서울문화재단 삼일로창고극장

구분	퍼실리테이터	주요 내용
워크숍① 무대의 확장	마틴 발데스-슈타우버 뮌헨 감머슈필레 극장/드라마투르그	디지털 시대 연극의 경계와 인식을 확장하는 작업의 필요성과 사례 소개
	카이 포게스 샤우슈필 도르트문트 극단/극단 총감독, 연출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연극 창작 작업 과정 및 사례 소개
워크숍② 무대의 게임화	얀 린더스 칼루스에 국립극장/ 드라마투르그	연극의 상호작용성이 중심이 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작업 사례 소개
	비요른 랭거스, 마르셀 카르납케 사이버 로이버/아티스트	VR을 활용한 작업 사례 소개 및 VR 기계 체험
	마티아스 프린츠 마키나 엑스/사운드 디자이너, 게임 기획자, 드라마투르그	게임의 요소를 활용한 작업 사례 소개 및 참여형 워크숍 진행

## 워크숍 I 무대의 확장-공연예술의 새로운 기술 사용

마틴 발데스-슈타우버는 2018년 10월, 뮌헨 캄머슈필레에서 초연된 '리미니 프로토콜'의 <언캐니 벨리(Uncanny Valley)>를 소개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연극에서 왜 기술을 사용하는가? 연극에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주제와 이슈가 제기되는가? 연극에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연극적 언어가 생겨나는가? 그는 <언캐니 벨리(Uncanny Valley)>의 드라마터그로서 연극에서 배우를 배제하고 로봇으로 대체하는 가장 급진적인 실험을 감행했고, 작품 속 유일한 변수인 관객은 로봇에게 동화됐다. 그는 이것을 디지털 시대의 일종의 인형극이자 관객을 관찰하는 리서치와 같은 공연으로 바라보았다. 역사적으로 기술은 무대를 다양한 의미와 공간으로 확장해왔고, 맥락에 따라 작품에서도 주제로서 혹은 상징으로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해왔다. 디지털 시대의 기술을 만날 때, 결국에는 '연극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주목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극의 경계와 인식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샤우슈필 도르트문트 극단을 이끄는 카이 포게스는 연극이 현재형의 예술이라고 말한다. 그가 생각하는 연극의 역할은 '현재의 이슈를 지금의 관객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하여 작품이 창작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혹은 의미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관계를 드러내지 못한 작품은 관객에게도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대의 이슈로 난민 문제, 세계화, 디지털화를 꼽으며 21세기의 연극을 앞서 말한 이슈들에 대한 리서치의 결과로서 바라보았다. 극단에서 현존하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무대를 연출하고, 이미지와 영상의 신(scene)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형식의 현장성을 제시하는 다수의 작업을 해왔다. 무엇보다 연출, 배우,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테크니션, 엔지니어 등 다양한 파트와 서로 존중하며 거리를 좁혀나가는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워크숍 II 무대의 게임화

얀 린더스는 칼스루에 국립극장에서 수석 드라마투르그이자 예술 부문 극장부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자신의 작업 중 <STAGE YOUR CITY>를 중심으로 디지털 예술을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어떤 의미를 도출하였고,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설명했다. 기존의 연극이라면 '글'이 있고 '무엇을 할까'를 고민했겠지만 얀 린더스는 기술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구조를 잡으며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콘텐츠를 고안했다. 그는 디지털에서 '기술성'과 '게임성',

‘놀이성’의 특징을 짚었고, 디지털 기술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었다. 디지털과 문화의 상관성은 사고방식을 전환해준다는 것, 시대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다양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꼽으며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비요른 랭거스와 마르셀 카르납케는 3년 전, ‘사이버로이버-VR연극’ 팀을 창설하여 작품의 무대를 실제 물리적 무대에서 가상공간으로 옮겨 가상현실과 연극의 상호작용을 실험해왔다. 3년간의 작업물들을 영상으로 먼저 본 뒤에, VR기계를 체험하며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사람에게겐 무대가 일종의 개념미술과도 같다고 말했다. 무대는 기술의 실험실이며, VR로 시각화의 한계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듯이 보인다고 했다. 연극이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VR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탐색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을 밝혔다. ‘왜 VR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고,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드로잉에서 선을 긋는 순간으로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실제로 선을 긋는 게 하나의 큰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VR이라는 비유를 들었다. 그들의 작업은 단순히 장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 ‘다른 시점으로 접근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작업들이었다.

마티아스 프린츠는 사운드 디자이너이자 게임 기획자, 드라마투르그로 2010년부터 극단 마키나 엑스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극단은 연극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게임을 실험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게임이 어떻게 연극 안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마티아스는 거대한 로봇 도시를 배경으로 한 컴퓨터 게임 <머쉬나리움(machinarium)>을 한국 참가자들과 함께 해보는 것으로 워크숍을 시작했다. 이 게임은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점에서 연극과 공통점이 있다. 이 게임의 요소를 적용한 작품인 <Lesson of Leaking>을 소개하면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습을 만들고 관객에게 공유되어야만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음을 말했다. 강연이 끝난 후 극단 마키나 엑스가 게임 연극을 구현하는 방식을 실험해보고자 한국 참가자들은 그룹별로 작은 게임을 만들기로 했다. 첫 번째 팀은 ‘방금 전 잃어버린 라이터 찾기’, 두 번째 팀은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주인공 등장 1분 전, 생일케이크에 꽃을 초를 찾기’, 세 번째 팀은 ‘로만피자집에서 나폴리탄 피자 먹기’를 주제로, 스토리, 장애품, 해결책을 고민하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최소한의 소품을 사용하여 움직이며 실험해본 것이다. 이러한 발표와 피드백은 게임 형식의 새로운 연극에서 ‘관객

참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연극의 새로운 관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지점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 2차 워크숍: 한국 예술가 토론 워크숍

이제 점점 더 많은 예술가와 단체들이 능동적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성격이자 새로운 흐름의 변화로 직시하고 있다. 1차 워크숍에 참여한 창작자들은 5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예술과 기술,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의 워크숍을 거치며 21세기 연극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주제로서의 기술을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가? 기술은 어떻게 무대 위에서 시간과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가? 전통적 방식의 창작 프로세스를 탈피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창작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관객과의 인터랙티브는 어떤 방법과 가능성이 있는가? 기술 개발자와 예술가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등의 주제와 관련된 확장된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구체화되어갔다. 각자의 관심과 관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참가자들 모두가 현재 있는 곳이 아닌 새로운 곳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일시 2019. 5. 8.(화) ~ 5. 9.(수)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대상 1차 워크숍 참가자 중 총 12명

### 2019 랩(LAB)의 공통 질문

- 기술을 사용하는 공연, 게임 형식의 공연 등 현대 공연 창작에서 관객의 위치 변화에 따른 관객과의 새로운 관계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 무대 위, 공연 안에서 배우가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Liveness는 발생한다. 현대 공연 창작에서 Liveness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는가?
- 디지털 시대의 창작에서 기술 및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 창작을 할 때, 전통적 방식의 창작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창작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 3차 워크숍: 작품 개발 및 결과 발표

3차 워크숍에서는 2019 랩(LAB)의 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10월 3일에는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 창·제작자의 위상과 미학적 태도’를 주제로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 전공)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문화예술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논의가 여전히 테크놀로지가 줄 수 있는 미적 표현 수단의 기계적 확장 능력과 관객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같은 기술(지상)주의적 관심과 욕망에 쏠린다. 테크노문화, 미디어·아트 행동주의, 커먼즈, 노동과 테크놀로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오늘날 뉴미디어가 스마트 환경, 특히 데이터 사회의 최첨단 기술 현실 속 창작자와 제작자의 작업 혹은 미학적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유하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인 10월 4일에는 심혜련(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가 ‘예술과 기술의 만남: 기술 장치적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예술과 기술의 만남에 대한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시대, 디지털 매체 시대를 넘어 ‘포스트 디지털’, 또는 ‘포스트 미디어’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이후의 매체 현상에 대해 논의하는 지금, 무엇보다도 ‘기술이 단지 표현을 위한 도구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음에 주목하면서 기술이 전제되는 새로운 형식들의 예술 생산과 그 수용 방식에 관해 다루었다. 디지털 매체예술에서 상호작용을 둘러싼 논쟁들과 평가들, 관객의 체험과 능동성, ‘분위기 감성학’과 ‘분위기 지각하기’ 등으로 논의를 이어나갔다. 예술과 기술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금이야말로 “왜 매체 시대에서도 여전히 예술이 필요한가?”를 묻고,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 1) 불멸의 극장

일시 2019. 10. 1.(화) 19:00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참가자 송주호

배우 및 스태프 출연 서지우 김보라 윤자영, 목소리 김무늬,  
컨셉 · 연출 송주호, 조명 박유진,  
음향 해미 클레멘세비츠

### 작품 내용

21세기 초, 서울시는 연극의 확장을 모색하기 위해 ‘삼일로창고극장’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하고 디지털 시대의 연극을 선보여 왔다. 그리고 21세기 말, 예술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인류의 진화로 인간들은 더 이상 연극을 하거나 보지 않게 된다. 백 년 동안 연극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학습한 삼일로인공지능창고극장은 어느 날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극은 “극장”을 핵심 소재이자 등장인물로 설정해 극장이 하나의 기계-인격체로서 구현될 가능성을 찾고, 나아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서 연극의 생존 가능성, 그러므로 불멸하는 ‘극장’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2) Brave New Sound

일시 2019. 10. 3.(목) 19:00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참가자 박효정, 윤사비나, 전강희, 홍유정

스태프 오디오 · 비주얼 JOO, 조명 박유진,

공간 코디네이터 김혜림

### 작품 내용

<Brave New World(멋진 신세계)>에 묘사된 전체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공장에서 대량생산되고, 감시와 통제를 받는 생활에 익숙하다. 존엄성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회복 의지조차 없는 상황은,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 디지털 기술에 무지한 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계도 헉슬리의 신세계와 닮아 있다. 이번 공연에는 아날로그 사운드가 디지털 언어로 변환되고, 실시간 프로세싱을 거쳐 다양한 미디어로 전송되면서 감각이 필터링되는 과정을 담고자 했다.





### 3) 신의 놀이

일시 2019. 10. 3.(목) ~ 10. 4.(금) 16:00, 17:00, 18:00,  
19:00, 20:00 (10회)

장소 명동 일대

참가자 김동환, 이수경, 전운환

배우 및 스태프 목소리 박근영 서정식 송김경화, 테크니컬  
디렉터 이동훈, 어시스턴트 테크니션 조빈

#### 작품 내용

<신의 놀이>는 비대면 이동형 연극이다. 새로운 연극 언어 개발을 목표로 창작진과 관객이 비대면으로 연극을 플레이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모바일 웹을 개발했다. 관객은 삼일로창고극장과 명동성당을 산책하듯 걸으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콘텍스트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작품이 어떻게 동시대 관객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테크놀로지 언어와 예술 언어가 만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언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실험했다.

#### 4) 3D 사운드 기술을 통한 극장 실험

일시 2019. 10. 5.(토) 13:00, 14:30, 16:00, 18:00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참가자 구하나, 김보람, 김연재, 최석규

배우 및 스태프 사운드디자인 장미, 녹음 강태연 구다혜,  
사운드기술 김다움, 조명 박유진, 출연 전민호,  
목소리 김정, 윤정로, 전민호, 정혜지

#### 작품 내용

극의 배경이 되는 지하철의 소리, 각 에피소드 속 인물들의 대사와 인물이 내는 다양한 소리들, 그리고 에피소드들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전단지라는 매개체의 소리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그러나 서로 연결된 상태로 극장 안에서 스피커 혹은 헤드폰을 통해 구현된다. 이를 위해 최근 VR 콘텐츠에서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앰비소닉 오디오(Ambisonic Audio)기술을 사용하여 공간을 입체적으로 녹음하고 각 소리를 3차원의 공간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믹싱했다. 극장을 방문한 관객은 16개 채널의 오디오로 송출되는 소리를 극장에 배치된 14개의 스피커와 6개의 헤드폰을 통해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

## 부대 프로그램 (강연)

일시 2019. 10. 3.(목) ~ 10. 4.(금)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대상 일반인 및 연극 창작자 29명

### 강연 프로그램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 창·제작자의 위상과 미학적  
태도(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예술과 기술의 만남: 기술장치적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심혜련,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하나의 주제를 두고 논의하고 작품을 만들고 발표하는 이러한 플랫폼 형식이 삼일로창고극장에서 유효한가? 극장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한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주제를 정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해맸다. 해매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작업 기간이 줄어들어 빠듯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프로그램에서는 뭐든 열어두고 자유롭게 하라고 했지만, 공연 혹은 결과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스토리 중심으로 간다거나, 스토리를 기술과 엮어서 만들자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나, 지금 이 시점에서 던지고 싶은 화두가 있었다더라면 나았을 것 같다.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작업하는 데 막히는 부분이 있다. 기술자와 창작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워크숍이 마련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김동환, <신의 놀이> 참가자)

“다들 하고 싶은 게 많고, 기술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기술 구현이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였다. 공학자, 과학자, 개발자, 아티스트가 어우러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테크닉을 가진 아티스트와 아닌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창작 과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열려있어서 좋았다. 공연예술지원 중심의 프로그램이 발표에 압박을 주는데, 삼일로창고극장의 랩(LAB)은 창작자들이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조금 아쉬웠던 건, 관객과의 대화에서 피드백을 받고 싶었는데 체감하는 게 없었다는 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든다.”

(윤사비나, <Brave New Sound> 참가자)

“‘예술과 기술’이라는 큰 주제로 랩을 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계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공학자, 인문학자, 예술가들이 섞여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플랫폼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아쉽다. 지금까지의 지원 방식은 기술이라는 매체의 필요성이나 기술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조건 기술을 구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했다. 이번 랩에서 보여준 것이 기술에 대한 실험 혹은 가능성도 있지만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를 보여주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 과정에 있는 작업은 주제와 질문이 중요한데 랩에서 창작자들이 던진 질문들, 연극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다음 단계에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술계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창작을 하는 데 있어 유효하고 가치 있는 질문들을 던졌다고 생각한다.”

(박지선, 삼일로창고극장 2019 랩(LAB) 기획)

“처음 만나보는 작업 환경이었다. 적극적으로 실험을 지지해주고, 그 실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지점이 가장 흥미롭고 좋았다. 또 하나는 기술과 예술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은 관점에서 출발했는데, 창작 과정 안에서 구체적인 질문들이 내 안에 남았다는 게 가장 좋았던 지점이었다. 예술가로서 앞으로 친착해보고 싶은 주제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 반대로 힘들었던 점은, 애초에 프로덕션을 구성해서 참여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에너지들을 써야 했다는 건데, 나는 창작, 질문에 더 집중하고 싶은데 각자의 시간이 너무나 달라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작업하는 것이 좋았던 지점이 있었지만 불편하기도 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다.” (전윤환, <신의 놀이> 참가자)

“나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도 흥미로웠다. 타인의 사고방식, 접근 방식을 들여다보면서 소모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막연함보다는 이해하면서, 서로 가져온 질문들 자체도 너무나 달라서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한 기술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디지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계속 헤매고 있었는데 랩(LAB)에 참여하고 동료들과 논의를 거치면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게 결국 예술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김연재, <3D 사운드 기술을 통한 극장 실험>참가자)

랩(LAB)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흥미로웠던 부분, 혹은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

“나는 이번 작업에서 기술적인 실험을 해보고 싶었고, 앱 개발을 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실험을 한 게 아니라 발주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 기술을 실험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 과정을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더라. 작곡을 의뢰하면 악보를 받고, 희곡을 의뢰하면 대본을 받는데, 개발을 의뢰하면 코딩 언어를 받을 수 있을까? 공연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 작업을 다시 복기할 수 있을까? 만들어나가는 과정 자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전윤환, <신의 놀이> 참가자)

“모두가 기술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어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투자한 십 년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배우거나 공유할 수는 없는 거다. 오히려 창작에 들어오는 모든 작업자가 질문을 던지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나는 이번 작업에서 기술에 질문을 가지기보다는 그 기술이 포함하지 못하는 것을 질문하는 동료에게 많은 영감을 받았다. 프로그래머, 기술자가 창작으로 들어오면서 예술가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원하는 지점을 얘기해나가고,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때 새로운 창작이 나오는 것 같다.”

(김보람, <3D 사운드 기술을 통한 극장 실험> 참가자)

해당 내용은 <2019 LAB> 합평회에서 나눈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삼일로창고극장 2019 랩(LAB)  
11월 워크숍  
3차 워크숍  
3차 워크숍  
3차 워크숍

#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연극

## STAGING THE DIGITAL AGE - THEATRE IN THE 21st CENTURY

2019. 4. 16(화) - 17(수)  
삼일로창고극장(공연정 & 스튜디오)

무엇을 디지털 가능성을 열기 위한 혹은 기존 기술 발전 속에서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금, 스타트업과 소셜 미디어는 커리어와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언어와 문화 언어를 장차 디지털로 전환을 가져와, 대중들을 인간이 고안한 것 이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현대 연극은 어떻게 자립을 할 것인가?  
가이디언 가이더는 전통적 연극의 경계를 재검토한다. 연극의 가이더를 통해 연극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어떤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비록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연극이 어떤 인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비록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연극이 어떤 인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비록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연극이 어떤 인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워크숍 I 무대의 확장 - 공연예술의 새로운 기술  
Expanding the Stage - Use of New Technology  
워크숍 II 무대의 게임화  
Gamification of the stage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삼일로창고극장  
대안: 후원회사, 언론, 후원단체, 작가, 제1, 제2

### 프로그램

구분	날짜	시간	내용
워크숍 I	4월 16일	14:00-18:00	미켈레 벨리오스-슈타우버
	4월 17일	14:00-18:00	카이 보게스
워크숍 II	4월 16일	13:00-15:30	안 판디스
	4월 17일	15:45-18:15	비르톤 행거스 & 미르넬
	4월 17일	14:00-18:00	마리아스 프란츠

### 강사 소개

**워크숍 퍼실리테이터**  
- 미켈레 벨리오스-슈타우버(Martin Valdez-Staub)  
- 안 판디스(An Pandis)  
- 카이 보게스(Kai Voges)  
- 비르톤 행거스(Birton Hanger) & 미르넬  
- 마리아스 프란츠(Maria Pia Franz)  
- 마리아스 프란츠(Maria Pia Franz)

### 참가신청

- ◎ 신청기간: 3월 19일(화) - 3월 22일(금) 워크숍 신청자가 불려 무척이에게 신청
- ◎ 문의: 02-759-2130
- ◎ 참가 신청서는 4월 16(화) 개별 홍보 물 예정입니다.
- ◎ 워크숍은 1차 1회 총 2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워크숍은 1차 1회 총 2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워크숍은 1차 1회 총 2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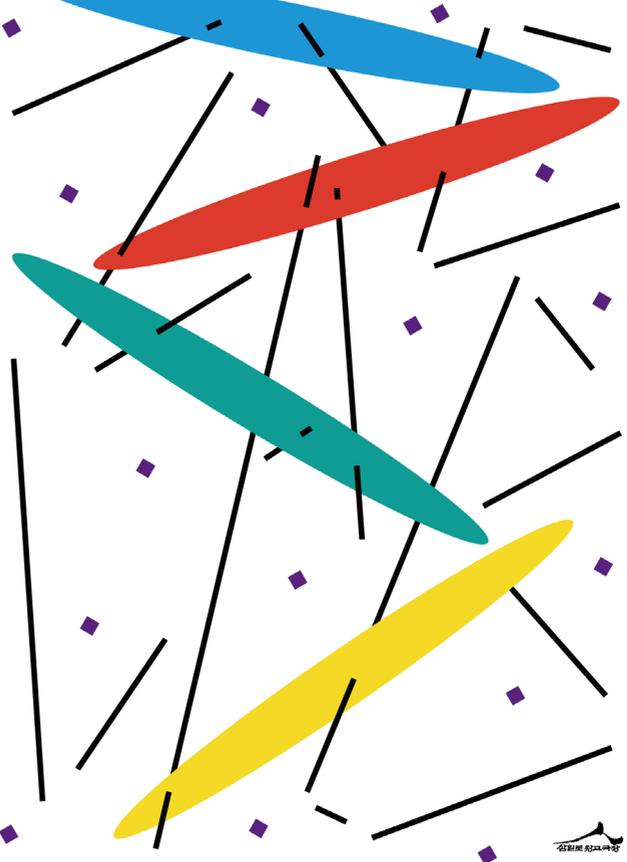
<http://bitly.kr/RAIM>

###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로길 12  
삼일로창고극장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2번 출구에서 5분 걸음  
-주요버스: 60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5분 걸음



## 삼일로창고극장 2019 랩(LAB) LAB: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연극 2019. 10. 01. — 10. 05. 삼일로창고극장



공동기획프로그램

청고개방

## “누구나, 아무거나, 무엇이나”

<창고개방>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24시간연극제>, <연극하는 멋진 우리들>, <기억의 개방>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공공극장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정립하고 개방형 공공극장으로 포지셔닝될 수 있도록 2주간 극장 전 공간을 창작자들의 창작활동과 발표 공간으로 운영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 연령 등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처음 시작하는 청년 연극인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극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창작자들 간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했다. 또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연극 창작 및 발표에 국한되어 있던 삼일로창고극장의 제한적 기능과 방향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평론가나 학자가 아닌 2~30대 다양한 연극인들의 개인적 기억을 바탕으로 2010년대 연극사를 아카이빙함으로써 10년간의 연극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하고 공유했다.

24시간 연극제는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고, 제비뽑기로 열 개의 팀을 구성했다. 당초 50명이 모집되었으나 개인 일정 등으로 최종 47명이 참여했다. 24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로 연극을 창작하여 15분 이내의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일시 2019. 11. 19.(화) ~ 12. 1.(일) 전일 20시 ~ 당일 19시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대상 창작자(연출가, 작가, 배우, 기획자 등) 47명 (10팀)

담당 프로그래머 김기일, 전윤환, 박혜원

### 프로그램 구성

구분	일시	주제	참가자	관객수
1팀	11.19.(화) 20시 ~11.20.(수) 19시	도리	박준석, 정세영, 안소정, 김지원, 김서영	30명
2팀	11.20.(수) 20시 ~11.21.(목) 19시	연보라	박지민, 정영록, 성지윤, 문선하, 박세련	22명
3팀	11.21.(목) 20시 ~11.22.(금) 19시	사랑	조제인, 이준수, 정다솔, 정현진, 서준	21명
4팀	11.22.(금) 20시 ~11.23.(토) 19시	2030년	남선희, 이서현, 김지수, 정지현, 이하영	13명
5팀	11.23.(토) 20시 ~11.24.(일) 19시	저승사자	장재희, 이진경, 김지우, 정회권	12명
6팀	11.26.(화) 20시 ~11.27.(수) 19시	인스타그램	허상진, 구여라, 이두영, 정대진, 안은호	22명
7팀	11.27.(수) 20시 ~11.28.(목) 19시	카메라	박가인, 최민영, 박혜랑, 성지하	12명
8팀	11.28.(목) 20시 ~11.29.(금) 19시	후회하고 있나요?	고서정, 전원배, 이현정, 이슬기	22명
9팀	11.29.(금) 20시 ~11.30.(토) 19시	I-Message	배민수, 방승민, 조다운, 최규화, 권지희	17명
10팀	11.30.(토) 20시 ~12.1.(일) 19시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날 안 좋아할까?	전병성, 노소희, 이유근, 양진규, 노유정	25명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연극과 관련된 기억을 수집하여 영상 상영회, 참여형 전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일시 2019. 11. 19.(화) ~ 12. 1.(일)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및 갤러리

대상 연극 창작자 및 관객, 학생들

담당 프로그래머 허영균, 김시내

일시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관객수
11.19. (화)~12.1.(일) 평일 17시, 주말 14시	전송하는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NS를 통해 2010년대 연극과 관련된 개인의 기억을 수집하는 ‘릴레이 영상 인터뷰’ 사전 진행</li> <li>○수집된 영상을 취합하여 공연장에서 상영회 진행</li> <li>○행사 기간 동안 갤러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 추가 진행 (익일 영상 업데이트)</li> </ul>	125명
11.19. (화)~12.1.(일) 평일 17시, 주말 14시	타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갤러리에 벽면에 2010년~2019년 타임라인을 설치</li> <li>○방문객들이 개인 연극사를 짧은 메모로 포스트잇에 적어 부착</li> <li>○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기억이 담긴 포스트잇 전시</li> </ul>	-
12.1.(일) 20시	토크 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송하는 역사’와 ‘타임라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0년대 연극사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 진행</li> </ul>	17명

## 전송하는 역사

### 인터뷰이

강윤지, 강한나, 경지은, 김기일, 김민조, 김보은, 김서영, 라소영, 박영희, 박태양, 성수연, 성지수, 신강수, 신재훈, 윤혜진, 이경성, 이리, 이세승, 이오진, 전민호, 전윤환, 전진모, 홍예원, 홍지영, 황유택 이상 25인

### 기억에 남는 연극계 사건은?

미투 운동(18), 블랙리스트(4), 팝업씨어터 사태(3), 세월호(2), 남산예술센터 존폐 문제, 오퍼레이터 임금 문제, <만주전선> 심사 배제 사태, <목적지수> 프레스콜 당시 배우 사고, 블랙텐트,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창설, 페미니즘 연극제, 화학작용1, 연극계로 돌아온 나(1)

### 좋은 연극이란?

“본인만의 주체적인 경험이 생산될 수 있는 연극” -

이경성(크리에이티브 VaQi 연출,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날카로운 순간이 나를 찌르는 작품” - 성수연(배우, 창작자)

“인간이 배제되지 않는 공연” - 이세승(무용가, 퍼포머, 배우, 연출)

“러닝타임이 짧은 연극(관객의 체감이 짧은)” - 김서영(관객, 배우)

“비겁하지 않은 연극” - 김기일(학생, 관객, 연출)

“연극의 기본적인 것들에 처음으로 접촉하는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은 공연” - 김민조(학생, 드라마터그, 평론가)

“안전한 제작 환경” - 경지은(학생, 배우)

“세상에 구체적이면서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 -

전윤환(연출, 기획, 극장 운영)

“재현 윤리를 갖춘 작품” - 김보은(배우, 성폭력예방 강사)

“연극이 훌륭해지기 위해 누군가를 파괴하지 않는 연극”

- 이오진(작가, 연출, 선생님)





## 가장 인상깊게 봤던 공연은 어떤 작품인가요?

2010

<11 그리고 12> <아매의사>  
<바나 아저씨> <비밀경찰>

2011

<다크니스 폼바>  
<푸르른 날에>  
<햇페퍼, 에어컨 그리고 고별사>

2012

<너무 놀라지 마라>  
<과부들> <두뇌수술>  
<그을린 사랑> <손님>  
<비밀경찰>

2015

<푸르른 날에>  
<차이메리카>  
<조씨고아,&br/>복수의 씨앗>

2014

<한 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보내는  
구소련 우주비행사의 마지막  
메시지> <여기가 집이다>  
<남산 도큐멘타>  
<검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  
<푸르른 날에>

2013

<할 수 있는 家>  
<가을 반딧불이>  
<알리바이 연대기>  
<국가보안법>  
<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얼굴의 컨셉에 대하여>  
<지면과 바닥>

2016

<빛의 제국> <위대한 생활의  
모험> <2016 고등어>  
<비포 애프터> <어느 계단의  
이야기> <햄릿아버지>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민중의 적>

2017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당신이 알지 못하나다>  
<리어 왕>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위대한 조련사> <파란나라>

2019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바늘과  
아편> <887> <여기에 있다 - 투명인간을 찾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 <킬미나우> <프라이드> <휴먼 푸가>  
<고독한 목록> <이갈리아의 딸들> <G의 영역>  
<비평가> <나는 살인자입니다> <스카팽> <알리바이  
연대기> <낭독회> <낙타상자> <배신> <한 개의 사람>  
<너에게> <엑트리스 원 : 국민로봇배우 1호>  
<젊은 연극: 가제> <Tribes>

2018

<오슬로> <불안 폭주 라디오>  
<처의 감각> <전윤희의 전문환  
- 자의식과잉> <얼굴도둑>  
<공주들> <퍼포먼스 - 노래의  
마음> <세익스피어 소네트>  
<신의 입자> <이방연애>

연극계의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은 무엇인가요?

2010

“유인촌 HANPAC 만들어  
스승 대표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던...  
<연극올림픽>”

2011

“유인촌 장관 그만둔 해”

2013

“메타비평 <데모크라시>  
김소연 평론가, 이동선  
연출가” “국립극단 검열  
최민우 <개구리> 기사”

2015

“김윤하 배우 사건. 예술인 복지법  
만들어지기 시작”  
“검열의 시작 - 국립극단 사태 포함”  
“프린지 페스티벌’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사한 거. 너무 넓었다.”

2014

“세월호... 세월호... 세월호...”

2016

“‘페스티벌 봄’ 사라짐. 운영진  
전원 사퇴” “권리장전 시작”  
“예술계 미투. 연극계 침묵”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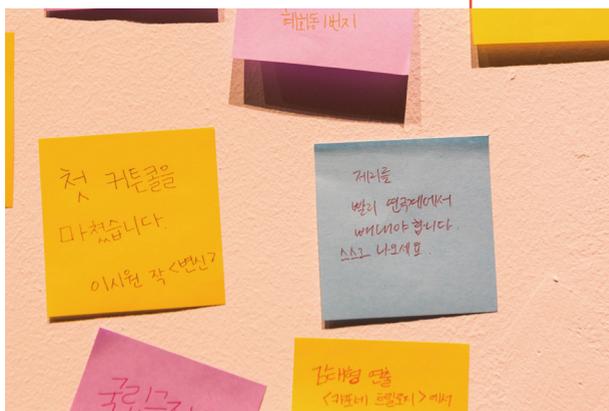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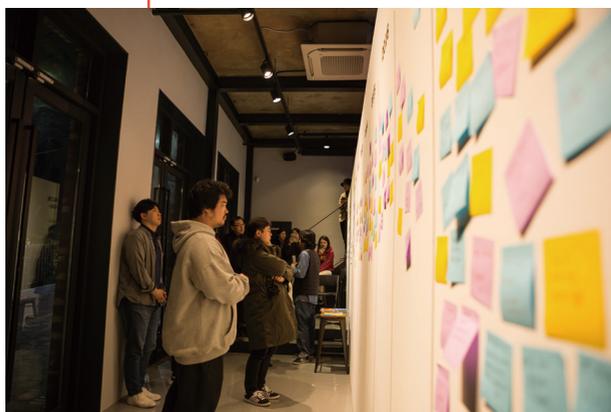
“블랙리스트” “검열백서”

2019

“‘배리어 프리’ 장애라는 울타리를 넘어선  
예술” “거대한 사건들에 가려 반짝 주목을  
받았던 연극 오페라이터 임금 문제. 다들  
그들을 욕했지만 그들은 현실이고 더 이상의  
착취는 사라져야 함을 잊지 말자”  
“제19회 서울변방연극제 이경성X아드리아노  
공동예술감독 체제로 변경되다. 수평화를  
지향하는 연극계의 실천”

2018

“미투!! 블랙리스트!! 지구 밖으로!!!”  
“제리를 빨리 연극계에서 빼내야 합니다.  
스스로 나오세요”  
“이름 바꾸고 활동하고 있는 범죄자들  
모를 줄 알았나?”  
“남산 드라마센터 유치진&서울예대 사유화  
논쟁 본격화” “페미니즘 연극제 시작”  
“극단 소울시어터 <만주전선> 대한민국  
연극제 심사배제 사건 -협회정치 그만!!!”  
“평교심(평론가+교수+심사위원)이라는  
도발적 신조어를 유포시킨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포럼 발제”





삼일로창고극장 갤러리를 연극인과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의 공간으로 개방하여 5개의 프로그램을 총 9회 진행했다.

일시 2019. 11. 22.(금) ~ 11. 24.(일),

11. 29.(금)~ 12. 1.(일) 평일 20시, 주말 17시, 20시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갤러리 및 야외공간

대상 창작자 및 일반 관객

담당 프로그래머 전윤환, 허영균, 김기일, 김시내, 박혜원

일시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관객수
11/22(금) 20시 11/29(금) 20시	음악회	○연극과 음악 활동을 겸하는 예술가들의 공연 및 토크쇼 ○참여 예술가: 옴브레(음악감독), 송은지(배우, 보컬), 목소(음향 디자이너), 오차차(배우)	51명
11/23(토) 17시 11/30(토) 17시	바자회	○공연에 사용되었던 소품, 의상, 굿즈 등의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중고장터	-
11/23(토) 20시 11/30(토) 20시	독백회& 시음회	○준비해온 독백을 낭독하면서 칵테일을 제공하는 연극인과 관객들의 네트워킹 파티 ○참여 예술가: 전민호(배우)	55명
11/24(일) 17시 12/01(일) 17시	무도회	○연극과 무용활동을 겸하는 예술가들의 관객 참여형 공연 ○참여 예술가: 김서영(배우), 이세승(배우, 안무가), 권은혜(배우)	40명
11/24(일) 20시	아무것도 아닌 밤	○‘연극’이란 주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쉽’을 제공하는 관객 체험형 프로그램	14명

음악회



바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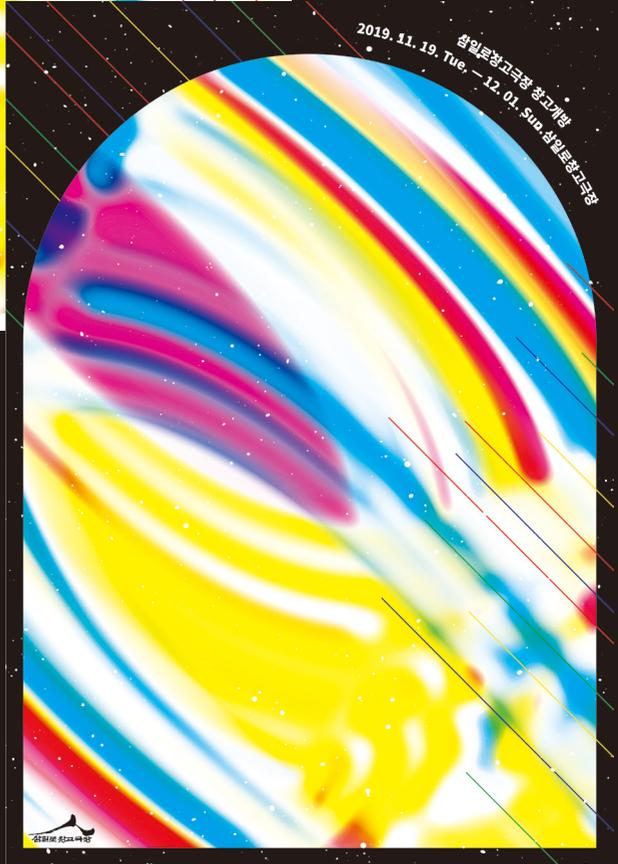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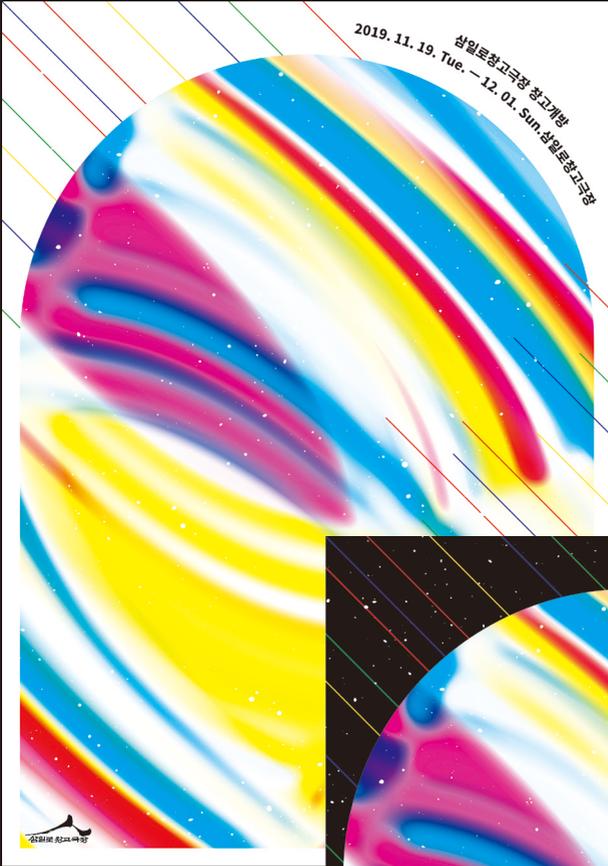






아무것도  
아닌 밤





2023년 예산  
및  
중점사업으로창고극장

및  
키  
그룹

## “상주단체 지원을 통한 예술계 다양한 이슈 담론화”

<워킹그룹>은 청년예술지원사업인 ‘서울청년예술단’과 연계하여 삼일로창고극장의 갤러리 공간을 상주 기반으로 예술 현장의 다양한 상상력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동시대 공연예술계 내외부의 이슈를 담론화하는 청년예술가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사유가 삼일로창고극장을 기반으로 발생하고 축적되었다. 특히 현재 공연예술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공연예술계 내 성폭력·위계폭력, 장애예술·배리어프리)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구체적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창작과 예술 환경에 대한 변화와 실천을 고민하는 청년예술가 단체가 삼일로창고극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에 그치지 않고 남산예술센터와도 발전적 사업(예: 무장애 예술, 장벽 없는 극장 만들기 포럼에 0set 프로젝트가 참가하여 <워킹그룹> 활동 내용을 발제)을 협력 및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갤러리 공간 규모 등의 문제로 상주공간이 주로 단체의 회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등 당초 목표했던 극장 공간 활용도 제고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 성반연플랜31

---

### “공연예술계 내 창작활동 현장 개선(성폭력·위계폭력 반대)”

기획형 선정단체인 성반연플랜31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계 내 성폭력·위계폭력 담론 형성과 실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성반연플랜31은 성평등한 언어와 문화의 확산 및 연대의 확장을 위한 정기 모임을 개최했고, KTS(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 제작의 원활한 논의를 촉진했다. 또한 공연예술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성차별·성폭력 반대 페스티벌 킷>에 참가했다. 아울러 창작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담론의 장을 여는 포럼을 열고, 건강한 공연예술 창작 활동 조성을 위한 정책 스터디를 진행했다. 그 외에도 공연예술 창작 현장 개선을 위한 페미니즘 세미나, 피해자와 연대하는 <지금 말하기 자리> 등의 활동을 했다. 2019년 성폭력반대공연 예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2019 성반연플랜31 결과공유회를 통해 그간의 활동을 공유했다.

## 구성원

강한나, 송경화, 신주훈, 양현경,  
최샘이, 홍예원

## 활동내역

### 5월 1. 월요모임: 호스트 설유진

2. KTS 제작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실무체계와 진행을 위한 동력 지원
3. <불편한 연극 말하기> 말하기 모임  
- 국가지원 제작극장의  
공연들을 리서치  
- 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스터디 병행
4. 6월 초 예정인 집담회의 방향성과  
실무 등에 관련된 회의
5. 영화 <노리개: 그녀의 눈물>  
시사회 참석 요청 거절

### 6월 1. 월요모임: 호스트 무민\_강한나

2. KTS 제작을 위한 워킹그룹 모임
3. <불편한 연극 말하기> 모임:  
<뼈의 기행>(모더레이터 김민조)
4.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집담회  
(사회 홍은지)
5. 페스티벌 킵(한국 여성의 전화)  
부스 참여

### 7월 1. 월요모임: 호스트 러들\_홍예원, 호스트 영희\_박영희

2. KTS 제작을 위한 워킹그룹 모임
3. <불편한 연극 말하기> 모임:  
<콘센트-동의>(모더레이터 김태희)
4. 연극인을 위한 성평등교육  
DIY 포럼(사회 홍예원)
5. 페스티벌 킵에서 수집한  
'응원포스트잇' 게재

### 8월 1. 월요모임: 호스트 이산

2. KTS 제작 워킹그룹:  
영국 로열코트 행동 지침,  
예술인 권리보장법안 스터디
3. <불편한 연극 말하기> 모임:  
<메이크업투웨이크업2>  
(모더레이터 유연주)
4. 세미나 '가해자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돌아오는 걸까?'

### 10월 1. KTS 제작 워킹그룹 모임:

- 성폭력반대공연예술인의날 부스,  
거리 퍼포먼스 참여
3. <불편한 연극 말하기> 모임:  
<와이프>(모더레이터 장윤정),  
<레몬 사이다 썸머 클린샷>  
(모더레이터 최하은)
3. 성폭력반대 공연예술인의 날 : 부스,  
전시, 포럼, 성평등 콘텐츠 개발  
결과공유회, 토크콘서트 등

“플랜31 활동뿐 아니라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의 2019년 가장 큰 의제는 성폭력을 반대하는 연극인, 또는 공연예술인의 확장에 있었다. 이는 6월에 열린 집담회를 시작으로 확인된 2019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다. 집담회에서 확인된 논의들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주최한 <페스티벌 킷>에 참가하는 일로 가장 먼저 가시화, 구체화되었고, 이후 포럼과 세미나들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들을 찾아나갔다. 10월에 플랜31이 주최한 두 개의 행사 중 12일 성폭력반대공연예술인의 날은 집담회에서 논의된 ‘우리의 확장’을 <페스티벌 킷>의 경험으로 알게 된 ‘축제의 자리’로 풀어낸 것이었다. 21일~24일의 갤러리 전시는 지금까지 플랜31 또는 성폭력반대연극인 행동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해온 플랜31 구성원들 개개인의 언어들로 6개월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첫 활동이었던 만큼 철학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6명의 구성원들은 잘 바뀌지 않는 현장과 하루가 다르게 첨예해지는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의 언어 안에서 치열하게 줄타기를 하며 2019년, 그리고 다가올 2020년에 대해 고민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는 연대의 필요성을 체감했고, 연대의 방식들을 고민했으며,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언어들을 찾아왔다. 그것이 집담회, 페스티벌 킷, 포럼, 성폭력반대공연예술인의 날, 결과 공유 전시회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뜻 깊은 6개월이었다. 이 6개월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이, 그리고 성폭력을 반대하는 공연예술계의 많은 단위들이 앞으로 행동하고 활동해나가는 데에 아주 소중한 경험과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플랜31 실적보고서 중

### “무장애예술, 장벽 없는 극장 환경 구축”

공모형 선정단체인 Oset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장애인/비장애인의 극장 접근성 연구 및 장벽 없는 극장 환경 구축에 대한 담론 현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Oset프로젝트는 장애인/비장애인 극장 접근성 연구를 위한 공연 모니터링(자기기록 워크숍)을 수행했고, <같이 잇는 가치> 포럼 부스 참여를 통해 담론을 확산시켰다. 또한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한 극장 접근성 및 장애예술을 탐구했으며, 월별 전체 세미나를 통해 공연예술 창작 현장에서의 환경을 관찰하고 연구했다. 실질적으로는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공간 탐사를 통해 소극장의 접근성을 구체적으로 연구했고, <관람모드>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 구성원

권은영, 임성현, 박동명, 김유미

## 활동내역

5월 1. 전체 세미나: <어쩌면 이상한 몸>

2. <같이 잇는 가치> 포럼 부스 참여

3. 구성원의 장애 주제, 소재,  
출연 공연 관람 시작

6월 1. <가족>, <디스, 에이블, 아트>,  
<미세먼지> 등 공연 관람

2. <어쩌면 이상한 몸>, <극장의 역사>,  
<몸의 증언> 독서 및 토론

7월 1. <이 동네 개관 5분전>,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132cm 사용설명서>  
공연 관람

2. 7월 관람모드 자기기록 워크숍 진행.

3. 삼일로창고극장 시설접근성 점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극장 체험  
촬영 및 기록

8월 1.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KIADA  
공연, 소리극 <옥이> 공연 관람

2. 8월 관람모드 자기기록 워크숍  
준비 및 기획

3. 삼일로창고극장 시설접근성 점검,  
삼일로창고극장 리모델링 설계  
과정을 기록

10월 결과발표 공연 <관람모드-보는 방식  
How to see> 공연/전시

“프로젝트 초반 설정했던 방향성은 리서치와 토론 과정을 통해 당초 예상치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이는 본연의 기획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하게 지나온 과정으로서, 결론적으로 평가해볼 때, 해당 주제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성찰의 확장과 심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이는 장기간 지원 구조였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판단된다.

극장 공간 전체를 공연 및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규모가 커져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극장 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아무런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 작업을 통해 발견한 극장 공간의 접근성 개선 방안과 리모델링 제안이 창작자의 상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극장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이슈를 리서치하고, 짧지 않은 기간동안 공연/전시 등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해 구체적 주제를 ‘제안’하는 이번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 이러한 시도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지원기관 측의 공동 모니터링 및 향후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Oset프로젝트에서 이 같은 고민을 오랫동안 전개해온 만큼, 이러한 문제의식 공유가 극장 및 관련기관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Oset프로젝트 실적보고서 중

기획전서

인쇄물  
연관  
전

## “시맨틱 데이터로 읽는 1970년대 삼일로창고극장”

기획전시 <입체열람전>은 『소극장 연극 시맨틱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정주영 저, 2018년, 보고서)에서 구축한 1975년~1979년 공연 자료 및 분석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에 기반한 70년대 당시 공연 형태 및 관계망을 시각화하여 드러내고, 위 보고서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된 연구 주제에 대해 장르별 예술가들의 창작물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는 2018년 6월 재개관 기념 전시 <이 연극의 제목은 없습니다>에서 다루었던 기간(1966년~1977년) 이후의 삼일로창고극장의 역사와 기억을 다룬 전시로서, 기존 연구논문을 활용하여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고, 공연 데이터를 현재 시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공연자로서의 나열식 전시가 아닌 공연예술 분야 아카이빙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일시 2019. 12. 16.(월) ~ 2020. 1. 5.(일)

13:00~18:00(단, 공연이 있을 시  
20:00까지) ※월 쉽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갤러리

대상 창작자(연출가, 작가, 배우, 기획자 등)  
47명 (10팀)

담당 프로그래머 기획 허영균,  
데이터제공 정주영,  
공간연출 석대범,  
웹디자인 류태석,  
공간설치 이미소,  
제작설치 김용현  
(스튜디오 에어),  
그래픽디자인 파이가

전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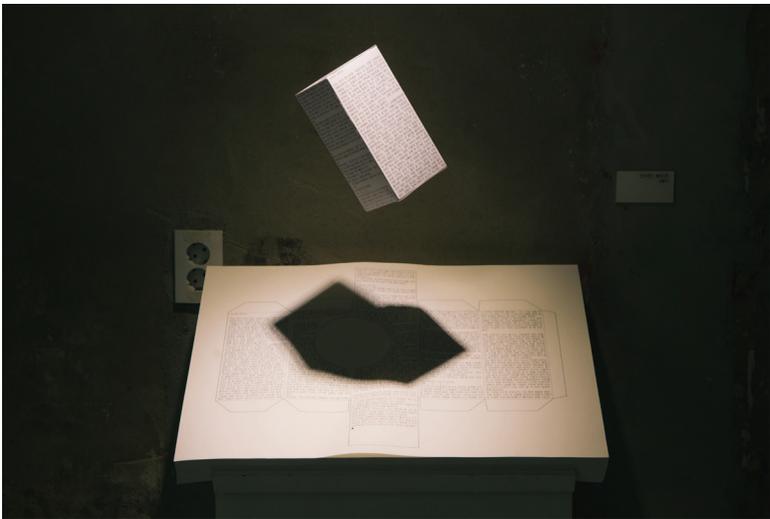
<입체열람전>은 연극 디지털 아카이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 <소극장 연극 시맨틱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다룬 1975년 에저또 창고극장과 1976년-1979년까지의 삼일로창고극장을 소재로 한다. 시맨틱 아카이브는 자료와 자료 사이의 맥락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시 기획(큐레이션)’의 개념을 포괄한다. <입체열람전>은 1970년대 삼일로창고극장의 역사, 사건, 이슈, 사실들을 평면적인 아카이브를 벗어나 ‘관계와 맥락’을 해석한다. 삼일로창고극장의 연극사적 의미와 예술/사회적 맥락을 되짚어보고, 시각화된 자료를 관객과 나누고, 자료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는 전시의 목표다. 다섯 명의 작가가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주제를 소설, 게임, 비평, 사운드로 재해석하였고, 이와 함께 갤러리 내부에 구축된 ‘데이터 센터’에서 관객들은 당시의 정보를 배치하고, 그 맥락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목	창작자	전시설명
선샤인 보이즈	김봉곤	‘자료’와 ‘관계’로 문맥을 전달하고자 하는 시맨틱 아카이브의 취지가 소설의 정의와 다르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 1970년대 삼일로창고극장에서 공연된 바 있는 <선샤인 보이즈>라는 희곡에서 영감을 받아 동명의 소설 재창작
A00109	김효래 윤여준	삼일로창고극장 데이터에서 삼일로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스쳐간 인물들에 주목하여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는 제한된 정보를 통해 김○○이라는 인물의 삶을 추적해보는 게임
스물여덟 개의 각주와 세 개의 인용과 열세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결론	김슬기	공연예술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탐색해보기 위한 생각의 단초로서, 산발적으로 축적되어 흩어져 있던 자료를 시맨틱 아카이브로 통합한 정주영의 연구논문에 대한 메타비평
락앤롤 보트 혹은 동아시아 무선연맹	석대범	1970년대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수행한 사전검열이 불과 몇 년 전 우리의 이야기였다는 것에 주목. 선 없이 뺏어나가는 무선 주파수를 잡아채어 그 신호만을 수신할 수 있는 소리를 재현
데이터센터	정주영 (데이터제공)	정주영 논문 『소극장 연극 시맨틱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에 구축되어 있는 DB를 관객이 직접 시현해 볼 수 있는 체험 제공









1940s  
1950s  
1960s  
1970s



# 입체열람전

시멘틱 데이터로 본

1970년대

삼일포항고극장

2019. 12. 17 -  
2020. 1. 5

삼일포항고극장  
갤러리

참여작가  
김봉근, 김습기,  
김호래 x 윤어준, 석대범

기획  
허영균

데이터 제공 및 분석  
정주영

주최기관  
삼일포항고극장 운영위원회

#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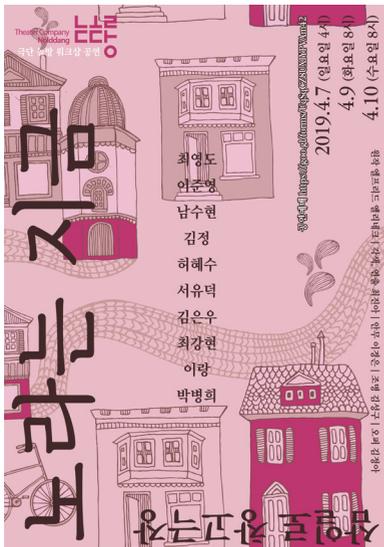
# 대관 프로그램

# 대관 공연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공연 프로그램 외 모든 기간은  
대관으로 운영한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을 통해  
총 17개의 작품이 공연되었다. 2018년  
대관건수인 10건에 비해 7건이 증가했다.  
총 대관일수는 116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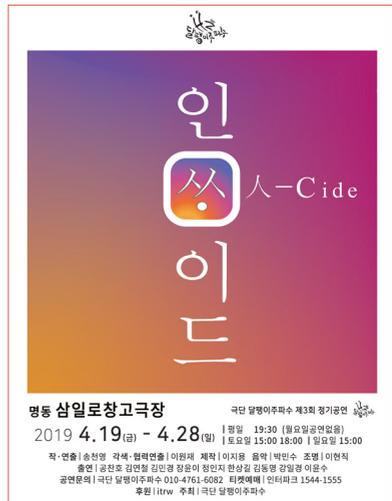
## 노라는 지금

04.05.~04.10.



## 인싸이드

04.18.~04.28.



묵묵부담

05.10.~0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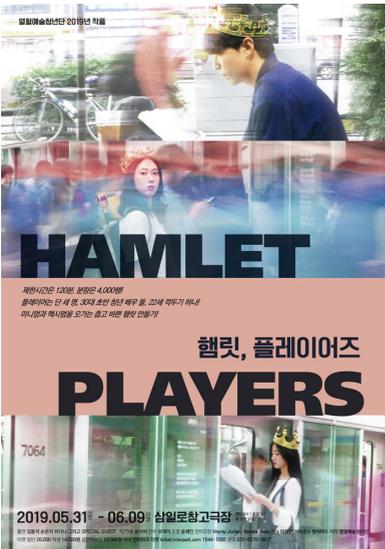
음악극 오늘하루

05.14.~05.26.



햄릿, 플레이어즈

05.28.~06.09.



面牧洞 면목동

06.18.~0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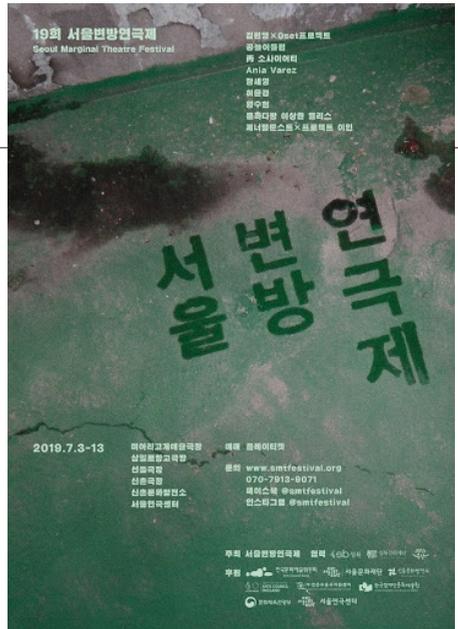






# 협력 대관

삼일로창고극장은 정기 대관공모사업 외에도 협력이 필요한 단체나 사업에 한하여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9년에는 19회 서울변방연극제 참가작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공연을 협력대관으로 진행했다.



김원영 × Oset프로젝트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7/11~13, 목금 8시, 토 3시 7시,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 스튜디오

---

## 대관

---

삼일로창고극장은 스튜디오 공간을 워크숍, 회의, 연습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대관하고 있다. 수시대관 방식으로 오전, 오후, 저녁, 전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대관건수는 총 31건으로, 전년도 대관건수인 9건에 비해 22건이 증가하는 등 스튜디오 대관이 큰 폭으로 활성화되었다. 총 대관일수는 245일이었다.

단체명	목적	대관기간
윤상원	연습	01.06~01.13.
아해프로젝트	워크숍	02.11, 18, 25
극단 해인	연습	01.17.
김혜연	회의	01.30.
극단 해인	연습	01.24.
극단 해인	연습	01.31.
드라마실천그룹 크래커	워크숍	02.16.
주식회사 파란달	연습	03.02.~03.31.
쿵짝 프로젝트	연습	03.02.~03.31.
극단 해인	연습	02.14, 21, 28.
JAT PROJECT	연습	02.20.~03.01.
극단 아르떼미루	연습	03.01, 03.05
쿵짝 프로젝트	연습	04.01.~04.14.
송정안	연습	05.13.~06.01.
플레이씨어터즉각반응	연습	04.30.~05.14.
쿵짝 프로젝트	연습	04.11.~04.12.
송정안	연습	05.28.~06.02.
사막별의 오로라	연습	10.07.~10.31.
프로젝트 타브(TAV)	워크숍	08.29.
프로젝트 레디메이드	연습	08.28.~08.29.
사막별의 오로라	연습	11.01.~11.05.
이수림	연습	10.07, 10.10, 10.14, 10.17
박한결	연습	10.08.~10.31.
박한결	연습	11.01.~11.16.
창작집단 미아	연습	12.02.~12.22.
창작공간 자기만의방	연습	12.02.~12.09.
극단 아르떼미루	연습	11.09.~11.10. 11.16.~11.17.
박한결	연습	12.07.~12.28.
사막별의 오로라	연습	11.02.~11.07.
스페이스몽키	연습	11.11, 11.12, 11.16
창작공간 자기만의방	연습	12.08, 12.10

# Report

# 리포트



# REPORT

# 운영위원회 활동보고

#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회

## 2019 운영회의록

---

### 1월 정기회의

일시 2019.1.4.(금) 15시 ~ 19(4h)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내용 · 공연장 및 창작공간 대관 내규 개정

- 2019년도 정기대관공모 추진계획 확정
- 2019년도 사업 기획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 확정
- 협력프로그램 “시카고 씨어터 스탠다드” 워크샵 공간 협조

참석 운영위원회 - 박지선, 정진세, 전윤환, 이경성, 나희경, 우연  
극장운영팀 - 도재형, 조유림, 김진이, 임성현, 박선임  
(11명)

---

### 2월 정기회의

일시 2019.2.1.(금) 14시 ~ 18시(4h)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내용 · 공연장 및 창작공간 대관내규 개정

- 2019년도 정기대관공모 추진계획 확정
- 2019년도 사업 기획 프로그램 내용 및 기간 확정
- 협력프로그램 “시카고 씨어터 스탠다드” 워크샵 공간 협조

참석 · 운영위원(5명) : 박지선, 정진세, 이경성, 전윤환, 나희경  
· 극장운영팀(9명) : 우연, 장재환, 도재형, 김지우, 조유림,  
송서연, 김민정, 김진이, 박세희  
· 무대기술팀(2명) : 임성현, 박선임  
(16명)

---

## 2월 수시회의

일시 2019.2.22.(금) 15시 ~ 19시(4h)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내용 · 공동기획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경과 논의  
· 신임 운영위원 위촉  
· 워킹그룹(안) 기획(주제, 대상, 기간 등) 설계 논의

참석 · 운영위원(5명) : 박지선, 정진세, 이경성, 전운환, 나희경  
· 극장운영팀(9명) : 우연, 장재환, 도재형, 김지우, 조유림,  
송서연, 김민정, 김진이, 박세희  
· 무대기술팀(2명) : 임성현  
(16명)

---

## 3월 정기회의

일시 2019.03.26.(화) 11:00~15:00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내용 · 공동기획 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추진 경과 논의  
- <워킹그룹> 기획형 단체 선정 및 공모형 공모 내용 논의  
· 허영균 신임위원 참여 프로그램 논의  
· 2019 공연장 대관운영  
- 2019 정기대관공모 선정작 중 대관 변경 신청 건 논의  
- 상반기 공실에 따른 수시대관 추진 논의

참석 · 운영위원(4명) : 박지선, 전운환, 나희경, 허영균  
· 극장운영팀(13명) : 우연, 장재환, 도재형, 김지우, 조유림,  
김진이, 송서연, 김민정, 박세희, 이슬예, 송혜현, 김지은,  
유혜리  
· 무대기술팀(2명) : 임성현, 박선임  
(16명)

---

## 4월 정기회의

일시 2019.04.15.(월) 11:00~15:00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내용 · 공동기획 프로그램

- <LAB> 4-5월 워크숍 추진 과정
- <창고포럼>(4월) 추진 과정
- <24시간연극제> 추진 과정
- <워킹그룹> 추진 과정
- <퍼포논문> 추진 과정
- 2기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운영위원회 내규 개정(안) 논의

참석 · 운영위원(4명) : 이경성, 전운환, 나희경, 허영균

- 극장운영팀(7명) : 우연, 장재환, 도재형, 김지우, 김진이, 송서연, 김민정
- (11명)

---

## 5월 정기회의

일시 2019.05.22.(수) 16:00~18:00(2h)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내용 · 공동기획 프로그램 추진 경과

- <LAB> 5월 워크숍 결과
- <24시간연극제> 추진 과정(모집 및 사전 모임)
- <퍼포논문> 추진 과정(논문 선정, 공연 일정 조율)
- <창고포럼> 계획(6월)
- 2019년도 하반기 공연장 대관 운영, 수시대관공모 계획(안)
- 운영위원회 내규 개정(안) 논의

참석 · 운영위원(4명): 박지선, 전운환, 나희경, 허영균

- 극장운영팀(9명): 우연, 장재환, 도재형, 김지우, 김진이, 송서연, 김민정, 김시내, 박혜원
- (11명)

---

## 6월 정기회의

일시 2019.06.12.(수) 15:00~18:00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내용 · 공동기획 프로그램 추진 경과

- <LAB>, <24시간연극제> 진행사항
- <퍼포논문> 논문 선정 및 향후 일정
- <창고포럼> 계획
- 공연장 및 창작공간 운영
  - <변방연극제> 공간협조(스튜디오)
  - 2019년 하반기 공연장 수시대관 심의

참석 · 운영위원(4명): 박지선, 전윤환, 나희경, 허영균

- 극장운영팀(7명): 우연, 김지우, 김진이, 송서연, 김민정, 김시내, 박혜원  
(11명)

---

## 7월 정기회의

일시 2019.07.01.(월) 11:00~13:00

장소 남산예술센터

내용 · 공동기획 프로그램 추진 경과

- 공연장 및 창작공간 운영

참석 · 운영위원(4명): 나희경, 이경성, 전윤환, 허영균

- 극장운영팀(8명): 우연, 장재환, 도재형, 김지우, 김진이, 송서연, 김민정, 박혜원  
(12명)

---

## 8월 정기회의

일시 2019.08.09.(금) 10:30~12:30

장소 남산예술센터

내용 · 2019년도 공동기획 프로그램 추진 경과  
· 2019년도 공연장 및 창작공간 운영  
· 1기 → 2기 운영위원회 연임자 논의

참석 · 운영위원(5명): 나희경, 박지선, 이경성, 허영균, 우연  
(불참: 전윤환 위원)  
· 극장운영팀(6명): 장재환, 도재형, 김진이, 김민정,  
김시내, 박혜원  
(11명)

---

## 8월 수시회의

일시 2019.08.21.(수) 12:00~14:00

장소 남산예술센터

내용 · 2기 운영위원회 구성  
· 2019년도 공연장 및 창작공간 운영

참석 · 운영위원(5명): 박지선, 이경성, 전윤환, 허영균, 우연  
(불참: 나희경 위원)  
· 극장운영팀(8명): 우연, 장재환, 도재형, 김지우, 김진이,  
송서연, 김민정, 김시내, 박혜원  
(11명)

---

## 9월 정기회의

일시 2019.09.24.(화) 10:30~13:30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내용 · 2019년도 공동기획 프로그램 추진 경과  
· 2기 운영위원회 공모 일정 및 방식

참석 · 운영위원(6명): 나희경, 박지선, 이경성, 전윤환,  
허영균, 우연  
· 극장운영팀(8명): 장재환, 도재형, 김지우, 김진이,  
송서연, 김민정, 김시내, 박혜원  
(14명)

---

## 10월 정기회의

일시 2019.10.31.(목) 10:30~13:00

장소 남산예술센터 3층 회의실

내용 · 2019년도 공동기획 프로그램 추진 경과  
· 2기 운영위원회 구성: 신규위원 공모 절차

참석 · 운영위원(5명): 박지선, 이경성, 전윤환, 허영균, 우연  
(불참: 나희경 위원)  
· 극장운영팀(6명): 장재환, 도재형, 김지우, 김진이,  
김시내, 박혜원  
(11명)

# 삼일로창고극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전윤환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

삼일로창고극장은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치하는 구조인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재개관 준비를 위해 2017년  
삼일로창고극장 1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9년 활동을  
끝으로 1기 운영위원회가 종료되었다. 1기 운영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삼일로창고극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정체성

---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회는 재개관을 준비하면서  
삼일로창고극장의 성격, 지향점,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을 여러  
단위의 자문회의와 포럼, 운영회의를 통해 이어나갔다. 자문 단위,  
개인마다 삼일로창고극장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다르게 읽고  
있었고, 원하는 방향성도 각각 달랐다. 재개관식에서 1기  
운영위원회는 ‘공공이 미처 하지 못하는 일과 민간극장이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듯이 공공과 민간의  
정체성을 동시에 끌어안고 출범하였다. 1기 운영위원회는  
삼일로창고극장의 특수한 정체성을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런데\_대관극장

---

삼일로창고극장은 대관극장의 성격이 강한 극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장 프로그램의 약 80%가 대관공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관 공연으로부터 극장의 성격이 상당 부분 부여된다. 대관 공연이 많은 까닭은 연간 예산의 한계로 큐레이팅을 통한 기획 공연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다양한 주체가 극장을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극장을 꿈꾸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삼일로창고극장은 여러 공공극장과 마찬가지로 대관 공모와 심의를 통해 대관 공연을 선정한다. 문턱이 낮은 만만한 극장을 표방하였으나 공모와 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상상력이 부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대관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된다.

## #남산예술센터가\_운영하는\_작은극장

---

삼일로창고극장은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민간운영회가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서울시의 장기임대에 따른 동일한 위탁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고 공연장 위탁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남산예술센터가 운영 지원을 하는 것이 행정적, 현실적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는 현장 작업자들 또한 삼일로창고극장이 남산예술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때때로 삼일로창고극장은 남산예술센터로 가기 위한 계단으로의 극장, 남산예술센터가 운영하는 작은 극장 정도로 인식되곤 한다. 보이는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함께 쓰고 있고 삼일로창고극장에서 만나는 스태프 대부분이 남산예술센터 스태프이기 때문이다. 시각적인 분리가 필요해 보인다. 분리에 앞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서울문화재단 극장운영실(전 남산예술센터) 기획제작팀의 T.O.다.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전과 비슷한 T.O.로 극장운영실 기획제작팀이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지원을 하게 되면서

예술행정가에게 늘어난 업무와 행정 구조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 #서울문화재단\_조직개편

---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회는 2018년 겨울 서울문화재단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와 항의를 표명한 바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삼일로창고극장이 생활문화팀, 문화기획팀과  
함께 지역문화본부 산하에 배치되었다. 극장 운영에 관한 관리를  
지역문화본부 직속으로 받게 되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극장의 방향성이 ‘지역문화’, ‘생활예술’로 일원화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개 항의문을  
서울문화재단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후 재단과 연극인 3차 간담회  
진행을 통해 ‘독립성 자율성을 위한 공공극장 TFT’가 구성되었고  
서울문화재단이 TFT 권고를 받아들여 2019년 겨울, 극장운영실로  
다시 독립하게 되었다. 삼일로창고극장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민간위탁협약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서울문화재단 극장운영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단 조직개편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서울문화재단의 순환보직  
인사로 인한 극장운영실 기획제작팀원이 바뀌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삼일로창고극장이 민관거버넌스의 형태로 운영되고 연극씬  
내부의 창작자와 함께 담론화하는 극장이기에 사업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운영위원회, 담당 예술행정가는 판단하고 있다.  
그만큼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극장이기에 순환보직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고민이 예술행정가 입장을 고려하면서 다각도로  
필요하다.

### #현실은\_임대극장

---

삼일로창고극장은 남산예술센터와 마찬가지로 건물주와 서울시가  
10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극장이다. 이제 3년이 지났고 앞으로  
7년이 남았다.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선배 임대극장인 남산예술센터의 말로를 지난 몇 년간  
뜬눈으로 보고 있다. 임대극장 삼일로창고극장은 서울시, 건물주,  
주변 상권, 현장 작업자들과 긴밀한 협의 구조가 필요해 보인다.  
말년에 꼬이지 않으려면 말이다.

### #민간이양

---

삼일로창고극장이 민관거버넌스 구조에서 더 나아가 민간이양  
되는 것을 보고 싶다. 민간이양 시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간, 독립 작업자들의  
컨소시엄으로 위탁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 민간 컨소시엄이 극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례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싶다. 무엇보다  
현재 서울문화재단 극장운영실에서 지원하는 행정, 극장 실무를  
민간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의 책임성이  
따른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민간이양을 위한 연구가 2기  
운영위원회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

거칠게나마 삼일로창고극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물론 삼일로창고극장에 어두운 현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앞서 소개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남아있는  
이슈 또한 2기 운영위원회와 삼일로창고극장 스태프, 현장  
작업자들의 지혜로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 REPORT

# 달라진 공간



삼일로창고극장 성중립화장실(장애인화장실 공동) 개선 전



삼일로창고극장 성중립화장실(장애인화장실 공동) 개선 후

# REPORT

# 기획 프로그램 설문조사 리포트

삼일로창고극장은 2019년에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해 창작자 및 관객들의 반응을 아카이빙했다. 6월에 진행된 <24시간연극제\_그룹편>의 경우 50명의 참여 예술가들에 대해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8월에 상연된 <퍼포논문>의 경우에는 참여 예술가 12명과 관람객 9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24시간연극제\_그룹편

## 프로 그램 만족도

<24시간연극제\_그룹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50명 중 30명(60%)이 '매우 만족'으로, 20명(40%)가 '만족'으로 응답했다. 프로그램 운영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32명(64%)이 '매우 만족'으로, 17명(34%)가 '만족'으로, 1명(2%)가 '보통'으로 응답했다. 기술 지원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38명(76%)이 '매우 만족'으로, 10명(20%)이 '만족'으로, 2명(4%)이 '보통'으로 응답했다. 또한 <24시간연극제\_그룹편>을 다시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39명(78%)이 '그렇다'로, 8명(16%)이 '생각해 보겠다'로, 2명(4%)이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로, 1명(2%)이 '아니요'로 응답했다.

## 프로 그램 참여 관련

한편 <24시간연극제\_그룹편>을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50명 중 33명(66%)가 '지인'으로, 13명(26%)이 '남산예술센터 SNS'로, 4명(8%)이 '기타'로 응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는 27명(54%)이 '팀/극단 작업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로, 12명(24%)이 '다른 창작자와의 교류를 위하여'로, 5명(10%)이 '삼일로창고극장에서 공연해 보고 싶어서'로, 4명(8%)이 '기타'로, 2명(4%)이 '팀/극단의 팀워크 다지기 위해'로 응답했다.

## [참여예술가 자유응답]

Q. <24시간연극제\_그룹편>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시간 제한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보고 타협할 수 있었던 경험을 한 점”

“창작진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한 운영팀의 적극적인 지원”

“완성된 형태의 결과물보다는 팀의 언어를 실험해볼 수 있었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획 취지가 긍정적”

“같은 주제로 3가지 색깔을 볼 수 있었던 것”

“예민할 수 있는 임금의 문제나 성폭력 문제, 초상권 문제 등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초반에 이 부분에 대한 양해와 공지가 잘 이루어졌던 것”

“주제가 다양하여 틀에서 벗어난 생각과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

“팀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

“공간적 실험과 같은 주제로 극단의 언어를 확인 할 수 있고, 다양한 작품 제작 방식에 대한 공유”

“다른 창작자들과의 협업”

“경쟁의 구도에서 벗어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점”

Q. <24시간연극제\_그룹편>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팀들과 교류하는 기회가 적었다.”

“주제에서 벗어난 공연을 한 팀들에 대한 아쉬움”

“관객의 수가 고정되어 있어 야외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어려웠음”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과정을 기록하는 작업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있지 않았어서 아쉬움”

“운이 좋게 선착순이 되었는데, 24시간연극제의 신청이 꼭 선착순이어야 할까? 추첨이면 어떨까요?”

“공연이라 생각하니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스스로 가지는 강박관념”

“합평회 또는 피드백, 네트워킹 자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밤을 새야 해서 체력을 소모하고 공연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단순한 이야기를 위해 폭력과 희생, 재난을 쉽게 가져와서 재연하는 팀들이 속상했다. 특히 첫째 둘째날은 이후의 노쇼를 걱정하게 될 정도였다. 하지만 창작을 제한할 수는 없고, 서로의 감각과 지키는 선이 다르기 때문에 아쉬움으로만 남긴다.”

**Q. <24시간연극제-그룹편>  
을 지인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설명하시겠  
습니까?**

“모험” “색다른” “브레인스토밍” “콤팩트” “실험” “24시간의  
가능성” “복불복” “즉흥” “리프레쉬” “함께” “선택과 집중” “목표  
공유” “밤샘” “다크서클” “전쟁과 평화” “도전” “극복” “극한직업”  
“짧고 굵은” “빡세다” “이 시대의 표현” “너가 하구 싶은 거 다 해”  
“우리가 만들자” “하루” “순발력” “창의성” “과정” “짜릿”  
“아이디어의 향연” “운” “개깸” “가까워지든지멀어지든지” “또  
다른 경험” “도라에몽 주머니” “창작의 재미” “좋은 기회” “한여름  
밤의 꿈” “한계 실험” “예측할 수 없음” “지원과 응원” “놀이터”  
“우리 같이 놀자” “발등에 불 붙이고 뛰어볼래?” “열정”

Q. <24시간연극제-그룹편>  
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많은 기회를 주세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더욱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공생을 위한 창작을 위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삼일로창고극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남을 것 같아요. 새로운 자극, 새로운 사람들과 만드는 즐거운 비명이 가득한 공간, 다시 삼일로에서 공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제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다양하게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룹편이기 때문에 소속그룹과는 더욱 단단해지는 좋은 기회였지만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다른 팀과의 교류가 원활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의 시간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참여 스태프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24시간 동안의 과정이 기록되고 공유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창작자들이 사실 공연을 올릴 만한 장소가 없기도 하지만, 그 팀의 언어를 실험할 만한 연습실이나 여러 환경이 갖추어 지지 않을 때가 많고 또 다양한 층위의 관객들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삼일로 24시간 연극제는 비록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이러한 창작자들에게 연습 공간, 공연장, 관객, 창작자들의 네트워킹을 제공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활발한 연극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저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우로서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작업입니다. 보다 많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나가주세요.”

“기대됩니다.”

“오래오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연극제 많이 많이 애정해요! 감사합니다 ㅎㅎ”

“지금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더욱 다양한 예술가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작자와의 대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 관객의 감상을 더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창작자와 공유하면 좋겠다. 하물며 당일 극단별 판넬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하는 식으로 / 참가팀의 이후 예정된 작업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스태프분들도 조금은 만족스러운 시간이었기를.”

“예산, 지원비용 늘려주세요~~”

“계속 이어나가 주세요”

“계속 해주세요”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르를 더욱 확대하여 활발한 운영 부탁드립니다^^”

“흥미로운 프로젝트라 잘 유지되어 많은 창작집단의 창의성을  
실험해보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편과 그룹편 2번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쪽 이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더 많은 더 다양한 창작자들의 놀이터가 되길  
바랍니다!! 선착순 모집 선착순 마감 제비뽑기 팀 정하기  
제비뽑기 주제 정하기는 앞으로도 유지 되길 바랍니다!!!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삼일로창고극장은 감동의 24시간 연극제이며 끝나면  
늘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3팀의 흐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하루면 아침 점심  
저녁 같은 어떤...? 어떤 우린 팀이지만 다른 팀도 오늘 하루의 팀  
같은 느낌이었나 보다.”

## 참여 예술가 만족도 조사

<퍼포논문>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된 <셀프-리서치그라피>와 <좁은 문>에 참여한 예술가 12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만족도 조사는 응답자가 각 설문 문항에 대해 ‘매우 불만족’(1번)과 ‘매우 만족’(7번) 사이의 구간 내에서 자신의 만족도 수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1.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2. 기획의도의 충실성



### 3. 제작비 지원



### 4. 운영위원과의 협업



### 5. 기획파트 극장 스태프의 전문성



### 6. 기술파트(무대, 조명, 음향) 극장 스태프의 전문성



### 7. 기술파트(무대, 조명, 음향) 지원



### 8. 제작비 외 공연서비스 지원(연습실 제공, 크루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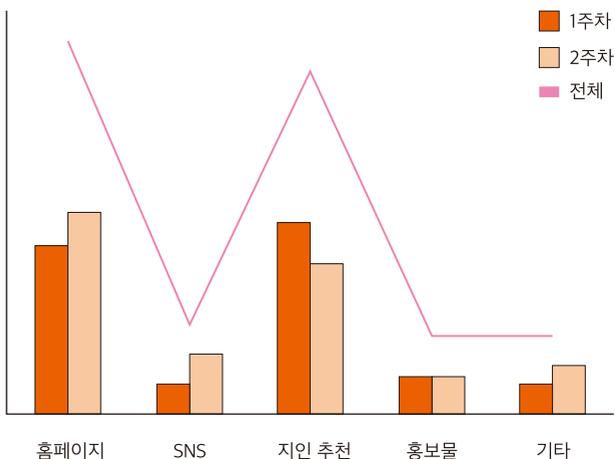
### 9. 언론홍보,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 홍보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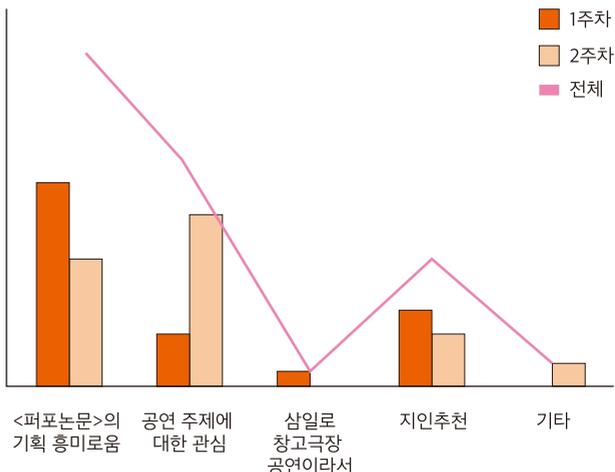
## 관람객 만족도 조사

<퍼포논문> 공연을 찾은 관람객 96명에 대한 출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주차 <셀프-리서치그라피> 공연 직후 설문에 응한 관람객은 46명이었고, 2주차 <좁은 문> 공연 직후 설문에 응한 관람객은 50명이었다. 조사 결과를 개괄해보면, <퍼포논문>을 알게 된 계기로는 ‘홈페이지’(37명)와 ‘지인 추천’(34명)이 가장 많았고 공연을 선택한 이유로는 1주차의 경우 ‘<퍼포논문> 기획의 흥미로움’(27명)에 응답한 관람객이 많았고 2주차의 경우에는 ‘공연주제에 대한 관심’(23명)에 응답한 관람객이 많았다. 이를 통해 1주차와 2주차 공연의 선택 이유에 차이가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퍼포논문>을  
알게 된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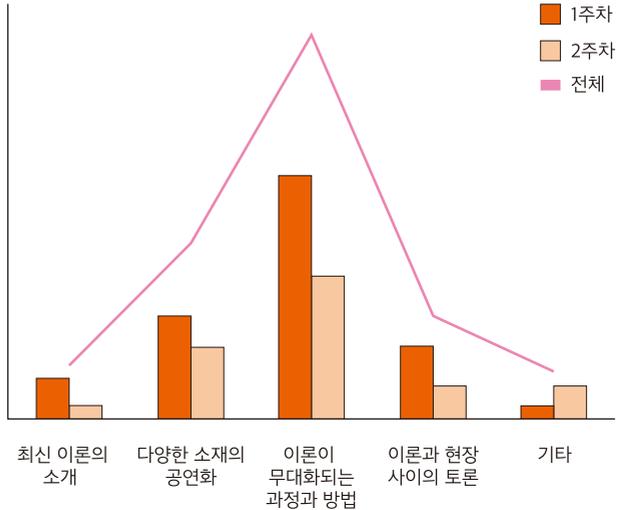


관람한 공연을  
선택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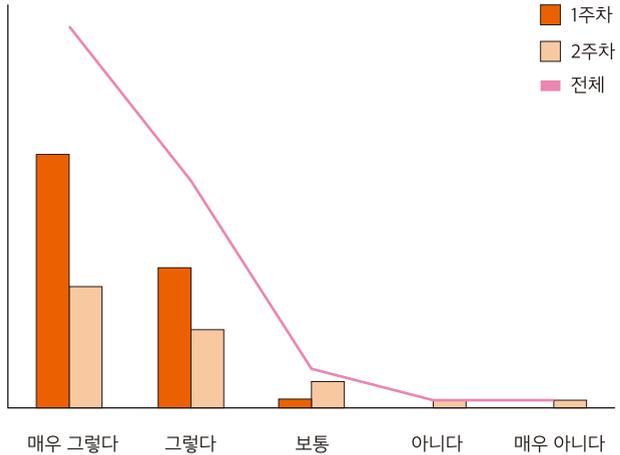


<퍼포논문> 기획의도에서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이론이 무대화되는 과정과 방법’(38명)과 ‘다양한 소재의 공연화’(17명)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논문을 무대화한다는 <퍼포논문>의 형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논문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대화라는 형식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퍼포논문> 기획이 얼마나 참신하게 느껴지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매우 그렇다’에 43명이, ‘그렇다’에 25명이 응답했고 ‘보통’ 이하의 항목을 6명이 선택했다.

<퍼포논문>  
기획의도에서  
기대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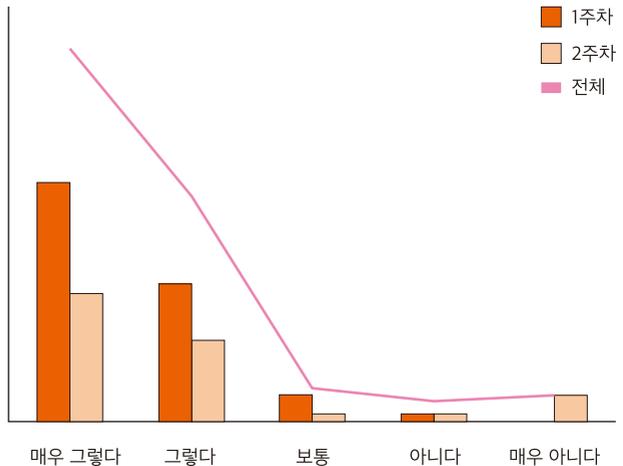


<퍼포논문>  
기획의 참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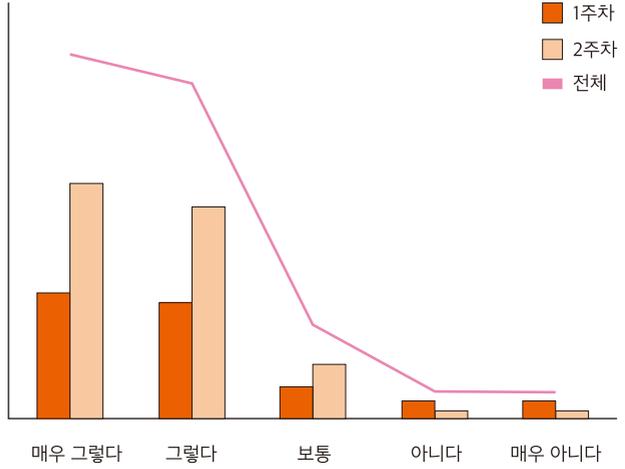


<퍼포논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매우 그렇다’(40명)와 ‘그렇다’(24명)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퍼포논문> 참여 논문의 현장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매우 그렇다’(31명)와 ‘그렇다’(28명)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함께 점수를 살펴보면 1주차가 78.6점, 2주차가 84.4점으로 유의미한 격차를 보였다. 1주차 공연의 주제인 ‘시노그래피’가 아직 연극계 내에서도 토론이 활발하지 않은 전문적인 주제에 속한 반면, 2주차 공연의 주제였던 ‘센터’의 경우 동시대의 이슈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이 보다 현장성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관람한 공연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매우 만족’(45명)과 ‘만족’(39명)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후에도 <퍼포논문>을 관람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 72명 중 70명이 ‘그렇다’로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향후 <퍼포논문>에서 보고 싶은 주제로 배우, 재현, 어린이청소년극, 문학(희곡) 작품 논문, 현 시대의 서사, LGBT, 청년들의 공공성/공동체, 여성/연극/예술/문화/블랙리스트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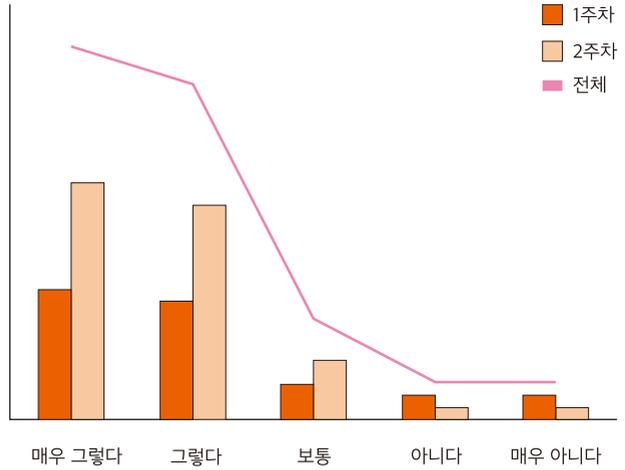
<퍼포논문>  
프로그램의  
필요성



<퍼포논문>  
참여 논문의  
현장성



관람한 공연의  
만족도



## [참여예술가 자유응답]

**Q. 삼일로창고극장이 다른 공공극장 및 민간소극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 프로그램이 좋지만 우선적으로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에 있어서 탁월하다. 결과물을 창작자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인데, 탐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제공해주어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점이 가장 감사하다.”

“기획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특히 젊은 예술가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소극장과 다르게 책임 있는 극장 운영으로 시설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극장 감독님들이 본인 분야의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운영 방식”

“스텝 분들이 따뜻하다”

“기획프로그램”

“자유롭고 서포트 받는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음”

“공연 제작과정에서 제작진의 자율성을 존중받으면서 동시에 여러모로 세심하게 제작에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퍼포넌스 기획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신하고 의미있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획에 참여해서 논문을 공연화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피디님 운영위원 극장 스텝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소통이 원활히 진행됨으로써 작업 진행도 순조로워지는 운영 방식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Q. 끝으로 삼일로창고극장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나  
삼일로창고극장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도, 올해도 두 번째 극장에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극장 관계자 분들이 늘 신경써주셔서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작업에 진척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 또 삼일로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남은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처럼만 :-)”

“극장은 이미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여태 기획하신 것처럼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꾸준히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멋진 극장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일로 창고극장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단점을 찾기 힘들지만... 스튜디오 사용시 사소한 불편함인데요, 연습실에 비치된 의자들을 따로 보관할 곳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소규모의 극장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 바 작업장 안에서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 [관람객 자유응답]

Q. 관람한 공연을 만족  
또는 불만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주차>

“논문을 공연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흥미로웠고, 읽기 힘든  
문자를 관객들에게 더욱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음.”

“논문을, 이론을 하나의 공연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과  
글쓴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내용이 신선했고, ‘시노그래피’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음. 단순히  
논문을 글로 받아들었다면 이해도는 현저히 떨어졌을 것임.  
이론을 무대화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최고임.”

“평소 연극 무대에서 집중, 조명되는 배우들이 아닌 공연을  
빛내고, 여러 뜻들이 담겨 있는 무대, 소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강연이라는 생각이 듦. 연극이라는 매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됨.”

“현장과 이론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와 기획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음.”

“새로운 이론,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음.”

“논문을 공연화하는 형식에 대한 만족감과 기대감”

“독창적임. 보는 내내 흥미로웠음.”

“논문의 주제 자체에 대한 참신성이 기획의 참신성에 못 미침.”

“논문 발표의 새로운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

“새로운 이론을 알게 된 것은 좋았으나, 더 다양한 예시 체험이  
있었으면.”

“이론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실천적 과정까지 함께 들려 주어 좋았음.”

“강의와 강연 사이의 줄다리기 필요.”

<2주차>

“주제, 구현방식, ‘여성’ 관객으로서 지지와 공감”

“실험의 경험”

“지금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논문을 무대에서 볼 수 있어 좋았음.”

“여성 배우 지망생으로서 연기 중 느꼈던, 생활 중 느꼈던 억압과 불편함을 생각해보는 기회”

“주제의 참신함”

“몰랐던 것을 알게 됨.”

“시도 좋으나 나이브한 면이 있음.”

“관심 있고 의미 있는 주제”

“논문과 현장의 소통과정, 상호영향”

“빈 공간, 가난한 연극, 앤 보카트 볼도인트 읽기 권한”

“공연은 좋으나, 일방적 정보 전달의 형태가 아니라 관객과의 교류 느낌의 기획이면 더 좋지 않을까?”

“논문 상태로 있던 이야기를 공연화해서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음.”

“관심 화두였기에 좋았고, 논문과 경험이 쓰이는 사실 그대로여서 좋았음.”

“논문 주제, 배우들이 참여했던 혹은 언급했던 공연, 캐릭터들을  
공연 보기 전에 알았더라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 배우/창작자와 직접 만난 기분이 들어  
좋았음.”

“솔직한 이야기, 정리되었지만 마무리되지 않은 생각. 필요하고  
적절했던 온도의 공연.”

“현재 고민하고 있던 지점과 관련성, 솔직함”

# 삼일로창고극장 2019년도 운영 결과

## 2019년도 운영 결과(요약)

구분	2019년	2018년 (6월 개관)	증감	비고
<b>운영위원회 운영</b>				
정기회의	12회	12회	-	
수시회의	4회	16회	△12회	
기획(자문)회의	24회	6회	18회	기획 프로그램 관련 회의 증가
<b>기획 프로그램 운영</b>				
프로그램 건수	6건	8건	△2건	운영위원 1명 당 1개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횟수	66회	71회	5회	
참여 예술가 수	365명	178명	187명	예술가 워크숍 프로그램 확대
총 관람객 수	1,123명	4,988명	△3,865명	
언론보도 건수	193건	179건	14건	
<b>대관운영</b>				
(공연장) 대관건수	17건	10건	7건	
(공연장) 대관수입	15,755,000원	11,100,000원	4,655,000원	전년 대비 대관기간 증가 (6개월→12개월)
(스튜디오) 대관건수	31건	9건	22건	
(스튜디오) 대관수입	5,590,000원	1,930,000원	3,660,000원	
<b>무대/시설</b>				
공연장 가동률	73.4%	79.9%	△6.5%	상/하반기 보수점검 추가 진행
스튜디오 사용률	109.9%	83.8%	26.1%p	내/외부 사용 포함, 대관기간 증가
정기 및 수시점검 횟수	46회	23회	23회	전년 대비 대관기간 증가
안전교육 횟수	46회	26회	20회	(6개월→12개월)

## □ 세부 운영 내용

### 1. 운영위원회 운영

가. 운영회의 진행: 총 16회 ※프로그램 기획회의(24회)  
미포함

정기회의 12회

수시회의 4회

내용 내규 정비, 사업 및 예산계획, 대관심의, 운영위원회  
공모 등 의결

나. 내규 정비: 총 2회

공연장 대관 내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납부액의  
100% 반환 조항 등 추가, 01.10.

창작공간 대관 내규

대관 신청기간 1개월→3개월 전으로 변경,  
대관 승인 배제 조항 등 추가, 01.28.

다. 2기 운영위원회 구성 (\*2020년 1월 中 구성 완료 예정)

· 1기 운영위원 임기 종료(~'19.12.31.)에 따라 2기 운영위원  
공모·구성

- 운영위원회 운영 내규에 근거하여 1기 위원 중 2인, 1년 연임
- 선임직 5인 중 연임자 2인을 제외한 총 3인에 대한 공모 진행

· 운영위원: 총 6인 ※2차 공모를 통해 2인 추가 선정

이름	임기	프로필	비고
박지선	~'19.12.31.	기획자, 프로듀서 그룹 도트	1기 위원 임기 종료
이경성	~'19.12.31.	연출가, 성균관 대학교 교수	1기 위원 임기 종료

나희경	~'19.12.31.	기획자, 페미니즘 연극제 대표	1기 위원 임기 종료
전윤환	~'20.12.31.	연출가, 전 혜화동 1번지 극장장	1기 위원 연임(2기)
허영균	~'20.12.31.	기획자, 출판사 1도씨 대표	1기 위원 연임(2기)
이희진	~'21.12.31.	기획자, 프로듀서 그룹 도트	2기 위원 선임 (1차 공모)
김주원	~'21.12.31.	배우	2기 위원 선임 (2차 공모)
신재훈	~'21.12.31.	연출	2기 위원 선임 (2차 공모)
우연	해당직위 재임기간	남산예술센터 극장장	당연직

## 2. 기획 프로그램 운영

### 가. 프로그램 운영실적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 기간	운영 횟수 (회)	참여자 수(명)		비고
				예술가	관람객	
포럼	창고포럼	03.26.~ 10.14.	5	98	-	비공개
공연	24시간 연극제	06.13.~ 06.16.	12	71	181	예술가 만족도 92점
공연	퍼포논문(1)	08.16.~ 08.18.	3	12	146	객석점유율 99.3%
공연	퍼포논문(2)	08.23.~ 08.25.	3	10	124	객석점유율 111.7%
워크 숍	LAB	04.16.~ 10.05.	3	75	174	예술가 만족도 86.7점
페스 티벌	창고개방	11.19.~ 12.01.	40	99	498	3개 프로그램
소계			66	365	1,123	
워크 숍	워킹그룹	05.01.~ 10.31.	서울청년예술단 사업, 자체활동(수시) 및 결과발표(2회)			
전시	입체열람전	12.17.~ 01.05.				

## 나. 프로그램 운영내용

---

### 창고포럼

세부내용 ·삼일로창고극장 운영방향 및 거버넌스  
운영방식 점검을 위한 포럼

·(1차)3.26. (2차)7.30. (3차)8.21.  
(4차)10.7. (5차)10.14.

담당위원 전윤환

---

### 24시간연극제

세부내용 ·선착순으로 모집한 팀/극단이 공연장, 갤러리,  
스튜디오에서 24시간 동안 15분 내외의 공연  
창작/발표

·(1차)3.26. (2차)7.30. (3차)8.21.  
(4차)10.7. (5차)10.14.

담당위원 전윤환



---

## 퍼포넨문

- 세부내용 · 공연예술 최신훈을 다시 무대화하여  
예술현장과 이론의 매개
- 저자 이지혜『한태숙 연출작업의 특성 연구-  
시노그래피의 관점을 중심으로』 및 저자 황은후  
『성별화된 몸이 여자 배우의 연기를 위한 창조적  
준비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편 무대화
- 담당위원 이경성, 허영균



---

## LAB

- 세부내용 · 기술융합형 공연예술 동향 파악, 실질적인 창작법  
연구/개발 및 발표
- 1차(4.16.~4.17.) 2차(5.8.~5.9.) 3차(10.1.~10.5.)
- 워크숍팀(4개) 운영 및 강연(2회) 진행
- 담당위원 박지선, 전윤환



---

워킹그룹(지원사업)

세부내용 · 서울청년예술단 지원사업

- 성반연플랜31(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Oset프로젝트(장애예술)
- 매월 활동비 및 사업비 지원, 간담회 진행 및  
결과발표회 지원

담당위원 나희경, 허영균

---

창고개방

세부내용 · 삼일로창고극장을 현장 예술가에게 2주간 전격  
개방

- ‘24시간연극제-개인편’ ‘연극하는 멋진 우리들-  
음악회, 바자회, 독백회&시음회, 무도회,  
아무것도 아닌 밤’ ‘기억의 개방-전송하는 역사,  
타임라인 전시, 토크콘서트’ 3개 프로그램 운영

담당위원 진윤환, 허영균



## 입체열람전

세부내용 · 『소극장 연극 시맨틱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정주영, 2018)에서 구축한 1970년대 삼일로창고극장 공연 데이터를 활용한 전시  
· 연극 아카이빙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기획전시

담당위원 허영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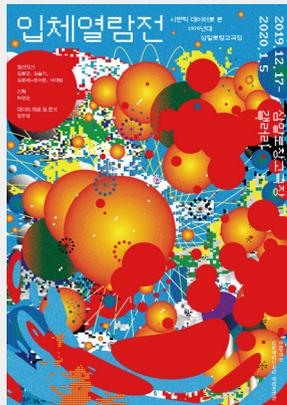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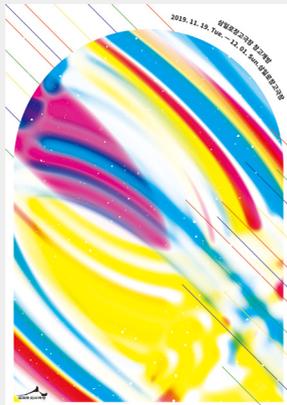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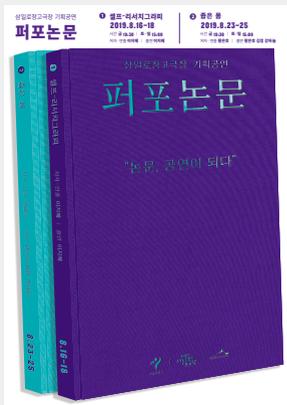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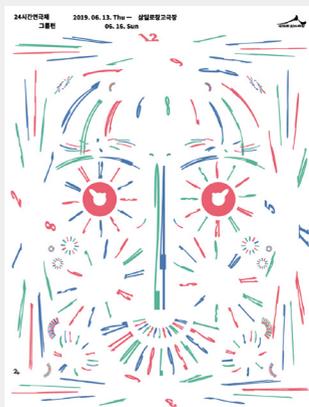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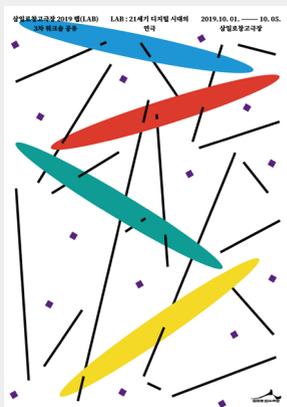
## 다. 홍보마케팅

· 언론보도 실적: 총 193건 ※2019.12..18.기준

공연명	보도건수(건)
24시간연극제	31
퍼포논문	21
LAB	10
창고개방	18
입체열람전 (12.18.배포)	2
삼일로창고극장 일반	111
합계	193

※<창고포럼>은 비공개 프로그램으로 보도자료 미배포

· 홍보물 제작실적



### 3. 대관운영

#### 가. 공연장 대관

- 대관기간: 2019.1월~12월
- 대관방법: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 대관실적: 총 17건, 116일, 대관수입 15,755,000원

구분	공연명	대관기간	대관일수(일)	대관수입(원)
대관공연	노라는 지금	04.05.~04.10.	5	710,000
대관공연	인사이드	04.18.~04.28.	10	1,340,000
대관공연	묵묵부담	05.10.~05.12.	3	460,000
대관공연	음악극 오늘하루	05.14.~05.26.	12	1,160,000
대관공연	햄릿, 플레이어즈	05.28.~06.09.	12	1,510,000
대관공연	面牧洞 면목동	06.18.~06.23.	6	920,000
협력공연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07.09.~07.13.	5	-
대관공연	캐리어 carrier	07.16.~07.21.	6	775,000
대관공연	모던걸타임즈	08.27.~09.08.	6	1,530,000
대관공연	새판소리-빨간피터이야기	09.19.~09.21.	3	375,000
대관공연	아빠 안영호 죽이기	09.24.~09.29.	6	865,000
대관공연	그 밖의 사람들	10.22.~10.27.	6	1,420,000
대관공연	산책자의 행복	11.05.~11.17.	12	1,465,000
대관공연	14 Steps	12.03.~12.08.	6	785,000
대관공연	사물: 물질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고...	12.10.~12.15.	6	900,000
대관공연	진료는 의사에게	12.17.~12.22.	6	860,000
대관공연	유일한 하나의 전체	12.24.~12.29.	6	680,000
합 계 (※12.20. 기준, 장비사용여부에 따라 대관수입 추가 가능)			<b>116</b>	<b>15,755,000</b>

나. 스튜디오 대관

· 대관기간: 2019.1월~12월

· 대관방법: 수시대관 ※오전, 오후, 저녁, 전일 구분 신청

· 대관실적: 총 31건, 245일, 대관수입 5,590,000원

단체명 (신청순)	목적	대관기간	사용일수(일)	대관수입(원)
윤상원	연습	01.06~01.13.	5	160,000
아해프로젝트	워크숍	02.11, 18, 25	3	150,000
극단 해인	연습	01.17.	1	20,000
김혜연	회의	01.30.	1	20,000
극단 해인	연습	01.24.	1	20,000
극단 해인	연습	01.31.	1	20,000
드라마실천그룹 크래커	워크숍	02.16.	1	20,000
주식회사 파란달	연습	03.02.~03.31.	26	520,000
쿵짝 프로젝트	연습	03.02.~03.31.	26	520,000
극단 해인	연습	02.14, 21, 28.	3	60,000
JAT PROJECT	연습	02.20.~03.01.	5	100,000
극단 아르데미루	연습	03.01, 03.05	2	40,000
쿵짝 프로젝트	연습	04.01.~04.14.	14	280,000
송정안	연습	05.13.~06.01.	18	360,000
플레이씨어터즉각반응	연습	04.30.~05.14.	15	560,000
쿵짝 프로젝트	연습	04.11.~04.12.	2	60,000
송정안	연습	05.28.~06.02.	4	80,000
사막별의 오로라	연습	10.07.~10.31.	22	640,000
프로젝트 타브(TAV)	워크숍	08.29.	1	20,000
프로젝트 레디메이드	연습	08.28.~08.29.	2	50,000
사막별의 오로라	연습	11.01.~11.05.	5	150,000
이수림	연습	10.07, 10.10, 10.14, 10.17	4	40,000
박한결	연습	10.08.~10.31.	15	170,000
박한결	연습	11.01.~11.16.	12	120,000
창작집단 미아	연습	12.02.~12.22.	21	540,000

창작공간 자기만의방	연습	12.02.~12.09.	6	180,000
극단 아르떼미루	연습	11.09.~11.10. 11.16.~11.17.	4	90,000
사막별의 오로라	연습	11.02.~11.07.	5	100,000
스페이스몽키	연습	11.11, 11.12, 11.16	3	60,000
창작공간 자기만의방	연습	12.08, 12.10	2	40,000
합 계 (※12.20. 기준, 장비사용여부에 따라 대관수입 추가 가능)			<b>245</b>	<b>5,590,000</b>

※대관건수는 수시대관 신청 기준임

※사용일수는 같은 날, 다른 팀이 각각 오전/오후 신청했을 경우 각각 1일로 계산

※외부대관 사용율 67.1%, 내부대관 사용율 42.7% (전체 109.9%)

#### 4. 무대·시설관리

구분	실적	세부내용
무대기술 지원	24건 (126회)	기획 프로그램 7건(LAB 2회), 협력대관 1건, 대관공연 16건
정기점검	2회	상반기 1회(01.01.~02.28.), 하반기 1회(06.24.~07.07.)
수시점검	44회	공연별 2회
안전교육	46회 (276명)	공연 참가자 및 외부 전문 기술인력 대상
시설 안전점검	72회	정기 24회, 수시 48회

2019 삼일로창고극장 운영보고서  
유동하는 극장,  
극장은 선택하지 않는다.

발행일  
2020년 3월 30일

발행처  
삼일로창고극장 공동운영단

기획  
허영균

편집  
김민조 최하은

디자인  
파이카 pa-i-ka

주최/주관  
삼일로창고극장



